차 례

제 1 과
일심단결의 장엄한 시위

영광스러운 우리 당이 창건된지 35돐을 맞는 뜻깊은 시기에 열린 당 제6차대회는 우리 당과 혁명에서 새로운 리정표를 마련한 뜻깊은 대회였습니다.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당 제6차대회와 당창건 35돐을 기념하여 진행되는 평양시군중시위가 일심단결의 위력을 온 세상에 보여주는 력사적인 계기로 되도록 현명하게 이끌어주시였습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습니다.

《일심단결은 주체조선의 상징이며 당과 수령을 충성으로 받드는 우리 인민의 참모습입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군중시위를 최대의 규모로 조직할데 대하여 가르쳐주시였습니다.

주체69(1980)년 5월 어느날이였습니다.

당 제6차대회와 당창건 35돐 경축행사준비정형을 알아보시던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일군들이 크게 마음먹고 작성하여 올린 행사조직안들을 하나하나 검토하시고나서 오물쪼물하지 말고 대담하고 통이 크게 판을 펴보자고 하시면서 그 규모부터 전례없이 크게 하도록 고쳐주시였습니다.

위대한 대원수님께서는 군중시위를 100만명의 규모로 정하시면서 오늘 우리 나라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 청소년들은 수령님을 총사열대에 높이 모시고 수령님의 앞을 지나가며 자기의 충성심을 검열받는것을 평생소원으로 여기고있다, 전체 조선인민의 이 평생소원을 풀어주기 위해서도 그 규모를 크게 해야 한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였습니다.

위대한 대원수님의 뜻깊은 말씀을 받아안은 일군들은 얼굴을 들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수많은 행사를 조직하면서도 우리 인

민의 그 심정, 그 평생소원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보지 못했던것입니다.

위대한 대원수님께서는 이번 군중시위는 당을 창건하신 수령님을 높이 모시고 당창건 35돐을 기념하고 당 제6차대회를 경축하는 군중시위이라고, 때문에 당과 수령의 두리에 철통같이 굳게 뭉친 우리 인민의 불패의 위력을 시위해야 한다고, 그러자면 공화국창건 30돐때보다 더 큰 규모로 조직해야 한다고 가르쳐주시였습니다.

그리하여 세계 어느 나라 력사에도 찾아볼수 없는 100만군중시위가 조직되게 되였습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당 제6차대회와 당창건 35돐 경축군중시위가 높은 수준에서 진행되도록 정력적으로 이끌어주시였습니다.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평양시군중시위를 위한 가장물준비와 대렬편성을 잘하도록 세심히 지도하여주시였습니다.

위대한 대원수님께서는 이번 군중시위가 세계적인 시위로 되게 하자면 그 규모와 함께 우리 인민의 조직성, 규률성, 전투성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대렬편성에서 기발대렬, 정보대렬과 같은 조직적대렬을 많이 넣도록 하시였습니다.

위대한 대원수님께서는 가장물도안과 모형도 하나하나 보아주시면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습니다.

위대한 대원수님의 세심한 지도밑에 군중시위준비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였습니다.

그러던 10월 5일이였습니다.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온 하루 현지지도의 길에서 겹쌓인 피로도 푸실사이없이 당 제6차대회를 경축하는 근로자들의 군중시위 총관통훈련을 지도해주시기 위하여 **김일성**광장에 나오시였습니다.

위대한 대원수님을 모시고 군중시위의 총관통훈련을 진행하는 영광을 지니게 된 시위참가자들은 끝없는 감격과 흥분에 휩싸여있었습니다.

두시간이 넘도록 군중시위를 지도해주시면서 구체적인 가르치심을 주신 위대한 대원수님께서는 훈련에 참가한 모든 대렬이 씩씩하고 규률있으며 군대에 못지 않다고 높이 평가해주시였습니다.

위대한 대원수님께서 군중시위 총관통훈련을 정력적으로 지도하시고 광장주석단을 내리실 때는 새벽이 가까와오고있었습니다.

이렇게 위대한 대원수님께서는 군중시위가 높은 수준에서 준비되도록 정력적으로 이끌어주시였습니다.

드디여 당 제6차대회와 당창건 35돐을 경축하는 군중시위의 날이 왔습니다.

력사적인 주체69(1980)년 10월 11일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과 **김정일**대원수님을 광장주석단에 높이 모시고 장엄한 100만군중시위가 진행되였습니다.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를 올리며 주석단앞을 지나가는 시위대오속에는 평양시민들은 물론 강선의 로동계급도, 주체사상탑건설자들도, 멀리 삼지연군의 림산로동자대표도, 검덕의 광부대표도, 신포의 어로공대표도, 열두삼천리벌의 농민대표도 있었습니다.

우리 인민들은 **김일성**대원수님과 **김정일**대원수님을 높이 모신 총사열대앞을 지나가며 목청껏 만세를 부르고 또 불렀습니다.

시작은 보여도 끝은 보이지 않는 시위대렬을 본 외국손님들은 감격하여 이 시위는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두리에 굳게 뭉친 불패의 통일단결의 시위이며 근로대중을 하나의 지향에로 이끌어주는 시위입니다, 이러한 통일단결은 원자탄보다 몇만배나 더 강한 위력을 나타냅니다, 이 힘을 꺾을자는 세상에 없을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참으로 일심단결의 위력을 과시한 장엄한 군중시위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의 통이 큰 작전과 현명한 령도가 낳은 빛나는 결실이였습니다.

제 2 과
충정이 깃든 김일성경기장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의 탄생 70돐을 맞으며 혁명의 수도 평양에 일떠선 대기념비적건축물가운데는 대원수님의 존함을 높이 모신 **김일성**경기장도 있습니다.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의 불멸의 혁명업적을 만대에 길이 빛내이실 뜨거운 충실성을 지니시고 주체사상탑, 개선문과 함께 모란봉경기장(당시)을 현대적으로 꾸리도록 이끌어주시였습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모란봉경기장을 현대적으로 개건확장하고 그 이름을 **김일성**경기장으로 할것을 발기하시였습니다.

모란봉경기장은 해방된 조국땅에 개선하신 **김일성**대원수님께서 우리 인민들과 처음으로 뜻깊은 상봉을 하시고 력사적인 개선연설을 하신 유서깊은 곳입니다.

이런 뜻깊은 사적이 깃들어있는 모란봉경기장을 현대적으로 개건확장하여 **김일성**대원수님께 기쁨을 드리려는것은 **김정일**대원수님께서 지니신 확고한 결심이였습니다.

언제인가 **김정일**대원수님께서 **김일성**대원수님을 모시고 인도네시아를 방문하신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많은 돈을 들여 건설한 채양식경기장을 보시면서 아직은 우리 나라의 형편에서 이런 지붕을 씌운 경기장을 건설하기는 힘들것이라고 생각하시였습니다. 그날 저녁에는 **김정일**대원수님과 함께 식사를 하시면서 우리도 앞으로 훌륭한 경기장을 하나 건설하자고 말씀하시였습니다.

언제나 **김일성**대원수님께서 소원하시는 문제를 풀어드리는데서 가장 큰 기쁨을 찾으시는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그때의 말씀을 가슴속깊이 새겨두셨다가 **김일성**대원수님 탄생 70돐을 계기로 모란봉경기장을 현대적으로 개건확장하실것을 결심하시였던것입니다.

주체70(1981)년 7월 중순 어느날이였습니다.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김일성**대원수님 탄생 70돐전으로 지금 있는 모란봉경기장에 지붕을 씌워 현대적인 경기장으로 개건확장하여야 하겠다고 하시면서 모란봉경기장을 현대적으로 꾸리고 그 이름을 **김일성**경기장으로 할데 대하여 말씀하시였습니다.

경기장을 개건확장할 웅대한 구상을 펼쳐주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공사가 성과적으로 진행되도록 정력적으로 이끌어주시였습니다.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공사를 짧은 기간에 그것도 불리한 겨울철에 진행해야 하는 어려운 조건에서 필요한 로력과 자재를 우선적으로 보장해주도록 하시였으며 온 나라가 힘있게 지원하도록 하시였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몸소 현지에 나오시여 공사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지도하여주시였습니다.

모란봉경기장이 날을 따라 그 면모를 일신해가던 그해 12월 어느날 공사장을 찾으신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관람석채양을 살펴보시고 좀 짧은것 같다고 말씀하시였습니다.

새로 설치한 관람석채양은 22m로서 이름있는 다른 나라 경기장의 채양길이보다도 13m나 더 긴것이였습니다.

위대한 대원수님께서는 놀라와하는 일군들에게 관람석의 채양길이를 지금보다 3m이상 더 늘이는것이 좋겠다고 하시면서 구체적인 방도까지 가르쳐주시였습니다.

위대한 대원수님께서는 탄생일을 맞으시는 날에도 공사장을 현지지도하시였습니다.

위대한 대원수님께서는 단 하루만이라도 편히 쉬시기를 간절히 말씀드리는 일군들에게 오늘 벌써 몇번째 그런 말을 듣는다고 하시면서 나는 어떻게 하나 수령님께서 바라시는 일을 기어이 풀어드리

리라 굳게 결심하였다, 이제 탄생 70돐을 맞으시는 수령님께 개건확장된 모란봉경기장을 보여드리려고 한다, 수령님께서 모란봉경기장을 보시고 환하게 웃으시며 만족해하시면 그것이 나에게 더없는 기쁨으로, 행복으로 될것이라고 뜨겁게 말씀하시였습니다.

이날 경기장건설장을 찾으신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존함으로 부르게 될 경기장은 하나의 자그마한 손색도 없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높이가 서로 다르게 시공된 배경대의 채양과 관람석, 주석단의 채양을 같은 높이로 고칠데 대한 문제를 비롯하여 경기장을 높은 수준에서 완공할데 대한 방향을 다시금 제시하시였습니다.

위대한 대원수님의 현지지도에 무한히 고무된 건설자들은 대원수님의 크나큰 믿음에 보답할 불타는 일념을 안고 기발한 착상과 대담한 방법으로 근 40일이 걸려야 할 채양공사를 단 3일동안에 해제끼는 기적을 창조하였습니다.

이처럼 위대한 대원수님의 정력적인 지도에 의하여 모란봉경기장개건확장공사는 불과 4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에 성과적으로 완공되게 되였습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을 모시고 완공된 **김일성**경기장을 돌아보시였습니다.

옛 모습을 찾아볼수 없이 새롭게 일떠선 **김일성**경기장을 돌아보신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대단히 만족해하시였습니다.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이처럼 크고 요란한 경기장을 단 넉달동안에 그것도 가장 추운 겨울철에 완공한것은 하나의 기적이며 우리 당, 우리 인민, 우리 로동계급의 위력을 다시한번 시위한것으로 된다고 높이 평가하시였습니다.

이렇듯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께서 바라시고 구상하신것이라면 그 무엇이든 현실로 꽃피우신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의 끝없는 충실성에 떠받들려 **김일성**경기장은 시대의 대기념비적창조물로 훌륭히 일떠서게 되였습니다.

제 3 과
《80년대의 김혁, 차광수가 되자!》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 근로자들이 조선혁명의 개척기에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께 충실했던 청년공산주의자들처럼 당과 수령께 끝없이 충직한 참다운 혁명가로 준비되도록 현명하게 이끄시였습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1920년대 청년공산주의자들이 지녔던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에 대한 신념화된 충실성에 대하여 가르쳐주시였습니다.

주체69(1980)년 1월 어느날이였습니다.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당중앙위원회 일군들을 만나신 자리에서 청년공산주의자들이 지녔던 신념과 혁명적의리에 대하여 뜻깊은 말씀을 하시였습니다.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수령님의 슬하에서 투쟁하던 김혁동지를 비롯한 청년공산주의자들은 20살안팎의 청년장군이신 자기들의 지도자가 앞으로 조선혁명의 수령이 되실것을 생각하였거나 자기들의 공적을 빛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혁명투쟁을 통하여 장군님의 위대성과 령도의 현명성을 체험하고 그이를 혁명의 령도자로, 혁명대오의 단결의 중심으로 내세우고 높이 우러러모시고 따랐으며 《조선의 별》과 같은 노래를 지어 불렀다고 말씀하시였습니다.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지금 생각해보면 민족의 운명이 암담하던 시기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 혁명투쟁을 한 청년공산주의자들이 대단한 사람들이였다고 평가하시였습니다.

사실 1920년대 후반기 우리 조국과 민족의 운명은 참으로 암담하였습니다.

일제는 조선독립운동에 나선 사람들을 가는 곳마다에서 무자비하게 탄압하였고 무슨 운동을 한다고 하던자들도 저마다 《애국자》,

《공산주의자로》로 자처하면서 혁명할 생각은 하지 않고 세력다툼질만 하였습니다.

바로 이러한 때 **김일성**대원수님께서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한몸에 지니시고 혁명의 진두에 나서시였습니다.

나라의 독립을 위하여 싸울 결의를 안고 투쟁의 길에 나섰으나 탁월한 지도자를 만나지 못하여 안타까이 모대기던 김혁, 차광수선생님을 비롯한 열혈청년들은 **김일성**대원수님을 만나뵈온 첫 순간부터 대원수님의 위대성을 느끼게 되였습니다. 그들은 혁명투쟁을 통하여 **김일성**대원수님을 높이 모시고 따를 때만이 혁명의 승리를 이룩할수 있다는 신념을 가지게 되였으며 대원수님께 운명을 전적으로 의탁하게 되였던것입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을 진심으로 받들어모신 청년공산주의자들의 충실성의 모범을 따라배우도록 정력적으로 이끌어주시였습니다.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출판물과 방송을 비롯한 선전선동수단을 통하여 혁명송가《조선의 별》을 널리 보급함으로써 **김일성**대원수님에 대한 청년공산주의자들의 충실성을 깊이 체득하도록 하시였습니다.

그리고 혁명영화 《조선의 별》을 만들도록 하시였으며 영화창조사업을 세심히 지도해주시였습니다.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혁명영화《조선의 별》이 나오자《로동신문》을 비롯한 출판물과 방송들에서 영화에 반영된 청년공산주의자들의 높은 정신세계를 해설하도록 하시였습니다.

한편 영화에 대한 연구토론회, 감상모임, 지상토론 등을 널리 진행하며 실효투쟁을 적극 벌리도록 이끄시였습니다.

그리하여 혁명영화 《조선의 별》의 주인공들처럼 당과 수령께 끝없이 충직한 혁명전사가 되려는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마음은 더욱더 끓어번지게 되였습니다.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80년대의 김혁, 차광수가 되자!**》라는 혁명적구호를 제시하시여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주체혁명위업의 한길에서 끝까지 충실하도록 이끌어주시였습니다.

주체70(1981)년 10월 어느날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청소년사업을 맡아보는 일군에게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습니다.

위대한 대원수님께서는 우리는 모든 청년들을 1920년대의 김혁, 차광수와 같은 견결한 청년혁명가로 키워야 한다고 하시면서 청년들이 《**80년대의 김혁, 차광수가 되자!**》라는 구호를 높이 들고 청년공산주의자들이 지녔던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과 불굴의 투쟁정신을 본받도록 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습니다.

위대한 대원수님의 말씀을 새겨들으며 일군은 조선혁명의 첫 기슭에서 마련된 수령에 대한 충실성과 혁명정신이 80년대에도 끊임없이 이어지게 하시려는 대원수님의 깊은 뜻과 의도를 더욱 뜨겁게 느끼게 되였습니다.

그후에도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불굴의 혁명정신을 가진 참다운 혁명가로 교양할데 대하여 가르쳐주시였습니다.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불굴의 혁명정신을 가진 참된 혁명가로 된다는것은 혁명의 령도자를 진심으로 높이 모시고 받들며 령도자의 사상을 견결히 옹호고수하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하여 목숨도 서슴없이 바쳐 싸워나가는 견결한 투사로 된다는것을 말한다고 하시였습니다.

그러시면서 불굴의 혁명정신을 가진 참된 혁명가의 전형은 김혁, 차광수와 같은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시였습니다.

위대한 대원수님의 말씀을 높이 받들고 우리 당과 인민은 《**80년대의 김혁, 차광수가 되자!**》라는 전투적구호밑에 청년공산주의자들처럼 살며 싸우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나갔습니다.

이 과정에 오직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만을 믿고 따르는 80년대의 김혁, 차광수들의 대오가 수없이 자라나게 되였으

며 대원수님의 령도따라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혁명위업완성을 위한 투쟁이 더욱 힘있게 다그쳐질수 있었습니다.

세력다툼 ㅡ 낡은 사회에서 서로 상대편을 누르고 자기 세력을 늘이기 위해서 하는 싸움.

제 4 과
락원의 로동계급을 믿으시고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락원의 로동계급이 50년대에 발휘하였던 자력갱생의 전통을 80년대에도 계속 빛내여나가도록 손잡아 이끌어주시였습니다.

우리 나라 서해북단에 자리잡고있는 락원기계련합기업소는 자력갱생의 본보기기업소입니다.

이 기업소의 로동계급은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와 전후복구건설시기 아무것도 없는 빈터우에서 수류탄과 양수기를 만들어냈으며 당에서 준 과업은 그것이 아무리 어려워도 무조건 집행하여왔습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자력갱생의 전통이 있는 락원의 로동계급에게 대형산소분리기를 만들데 대한 과업을 주시였습니다.

산소분리기로 말하면 공업의 자랑이라고도 할수 있는 참으로 크고 복잡한 설비입니다. 이런 설비를 생산하자면 높은 기술과 풍부한 경험이 요구되기때문에 기술이 발전하였다고 하는 나라들에서도 만들 엄두를 내지 못하고있는 형편이였습니다.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대형산소분리기를 만드는것이 아무리 어

렵고 힘들다해도 락원의 로동계급은 꼭 해내리라고 굳게 믿으시고 이 영예로운 과업을 그들에게 맡겨주시였습니다.

그후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락원의 로동계급이 대형산소분리기를 성과적으로 만들어낼수 있도록 세심한 지도를 주시였습니다.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몸소 두차례에 걸쳐 산소분리기분공장 총건설설계도를 보아주시고 공장이 하루빨리 건설되도록 힘있는 건설력량을 보내주시였습니다.

그리고 공장건물이 일떠서자 이번에는 수백가지의 크고작은 대상설비들도 보내주시였습니다.

주체73(1984)년 10월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락원기계련합기업소(당시 락원기계공장)를 세번째로 찾아주시였습니다.

위대한 대원수님께서는 새로 건설된 산소분리기분공장부터 보아주시였습니다.

산소분리기생산실태를 하나하나 알아보시며 천천히 걸음을 옮기시던 위대한 대원수님께서는 일군들을 둘러보시며 대형산소분리기설비들가운데서 공장에서 자체로 만드는것은 모두 얼마나 되는가고 물으시였습니다.

한 일군이 몇개의 설비를 내놓고는 모두 공장에서 자체로 만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자 위대한 대원수님께서는 못내 만족해하시며 어느 한 제품앞으로 다가서시였습니다.

그 제품은 일부 나라 사람들이 자기네만 만들수 있다고 하면서 비밀에 붙이고있는것이였습니다. 그러나 이 공장 로동자, 기술자들은 자체의 힘으로 새로운 방법을 대담하게 받아들여 그것을 끝내 만들어냈던것입니다.

위대한 대원수님께서는 못내 대견해하시며 제품이 어떻게 만들어져나오는가 보게 어서 기계를 돌리라고 말씀하시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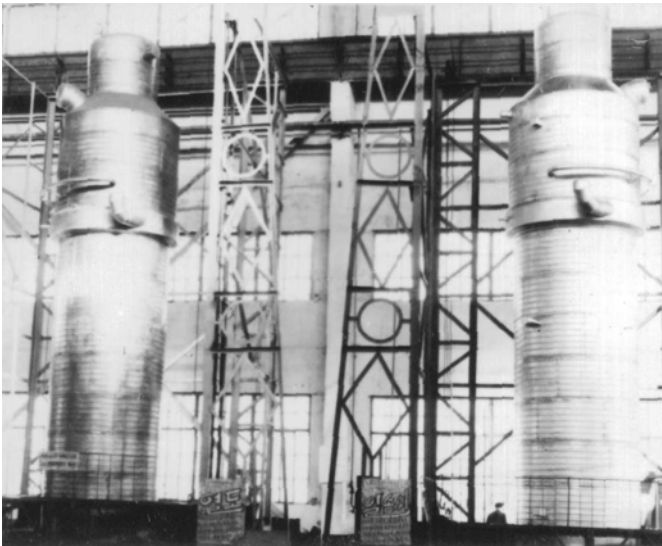
기대공이 스위치를 넣자 기계가 서서히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기대앞에 가까이 다가서시여 제품이 나오는 모습을 유심히 살펴보시던 위대한 대원수님께서는 정말 동무들을 믿은 보람이 있다고 치하해주시였습니다.

위대한 대원수님께서는 산소분리기를 분해도 해보지 못한 동무들이 이렇게 정밀한 기계를 만들다니 참 대단하다고 하시면서 이것은 우리 나라 공업의 위력을 다시한번 과시한 일대 혁명이라고 하시였습니다.

그러시면서 락원로동계급의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과 모범을 전국이 따라배워야 하겠다고 말씀하시였습니다.

사실 그들이 거둔 성과들은 그 어느 하나도 위대한 대원수님의 세심한 보살피심과 떼여놓고 생각할수 없는것이였습니다.

하지만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모든 성과를 락원의 로동계급에게 돌려주시고 그들에게 크나큰 믿음을 안겨주시였습니다.

대형산소분리기

위대한 대원수님께서는 산소분리기를 만든 동무들은 어떤 동무들인가고 물으시고나서 모두 평가해주시오, 고생하면서 수령님의 교시를 관철한 동무들인데 입당도 시키시오라고 말씀하시였습니다.

이날 위대한 대원수님께서는 다른 직장을 돌아보시고 걸린 문제들을 다 풀어주신 후에야 차에 오르시였습니다.

그런데 정문쪽으로 향하여 달리던 승용차가 갑자기 다시 공장으로 되돌아오는것이였습니다.

차에서 내리신 위대한 대원수님께서는 일군들을 가까이 부르시더니 떠나면서 생각해보니 입당문제가 마음에 걸려 되돌아왔다고 말씀하시였습니다.

위대한 대원수님께서는 산소분리기생산에 참가한 로동자, 기술자들가운데 입당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으면 그들을 대담하게 입당시켜야 하겠다고 말씀하시였습니다. 그러시면서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훌륭히 관철하는 사람들이 바로 영웅이고 투사들이라고 뜨겁게 말씀하시였습니다.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크나큰 감격에 휩싸인 일군들을 정어린 눈길로 바라보시며 위대한 수령님께서 바라시는대로 자력갱생의 전통을 더욱더 빛내여가는 락원의 로동계급에게는 그 무엇도 아까울것이 없다고, 산소분리기가 돌아가는 그날에는 더 큰 턱을 내겠다고 또다시 은정어린 말씀을 주시였습니다.

이 위대한 사랑과 크나큰 믿음에 끝없이 고무된 락원의 로동계급은 용기백배, 기세충천하여 **김정일**대원수님께서 다녀가신지 얼마 후 대형산소분리기를 만들어내는 놀라운 기적을 창조하였습니다.

참으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의 뜨거운 사랑과 믿음이 있어 락원의 로동계급은 자력갱생의 전통을 계속 빛내이며 전국의 앞장에서 나아갈수 있었습니다.

대상설비 — 어느 한 개별적대상에만 적용할수 있도록 그에 맞게 만든 설비.

산소분리기 — 공기나 물을 분해하여 산소를 얻어내는 기계.

제 5 과
사로청 제7차대회를 현명하게 이끄시여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의 정력적인 지도에 의하여 사로청(오늘의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제7차대회는 청년들이 당을 따라 영원히 혁명을 계속할것을 맹세한 결의대회로 우리 나라 청년운동력사에 영원히 기록되여있습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사로청 제7차대회를 성대하게 하면서도 짧은 기간에 준비하도록 현명하게 이끌어주시였습니다.

주체70(1981)년 8월 어느날이였습니다.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당중앙위원회의 한 책임일군을 몸가까이 부르시여 사로청 제7차대회에 많은 나라 청년대표단을 초청하여 당 제6차대회처럼 규모가 크고 성대하게 진행할데 대한 말씀을 주시였습니다.

위대한 대원수님의 말씀을 받아안은 사로청일군들은 높은 열정을 가지고 대회준비사업에 달라붙었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또다시 당중앙위원회의 한 책임일군을 부르시여 사로청 제7차대회를 10월 하순에 하자면 이제 한달밖에 남지 않았다고 하시면서 대회준비사업을 당에서 직접 맡아할데 대하여 가르쳐주시였습니다.

그러시고는 그날 또다시 당중앙위원회 책임일군협의회를 소집하시고 사로청 제7차대회의 중요성과 그것이 우리 나라 청년운동과 청년사업발전에서 가지는 의의에 대하여 밝혀주시면서 대회준비와 관련한 구체적인 말씀을 주시였습니다.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며칠후 또다시 협의회를 소집하

시고 이렇게 말씀하시였습니다.

《이번에 진행되는 사로청 제7차대회는 총결기간 사로청사업에서 이룩한 자랑찬 성과들을 총화하고 사로청조직들이 당의 령도에 끝없이 충실할데 대한 굳은 결의를 새롭게 다지게 되는 력사적인 대회입니다.

사로청 제7차대회는 우리 당의 강력한 정치적후비대가 튼튼히 자라나고있다는것을 온 세상에 시위하게 될것이며 사로청이 영원히 당을 따라 혁명을 계속하겠다는 결의를 새롭게 다지는 중요한 계기로 될것입니다.》

그러시면서 사로청 제7차대회와 관련하여 신문, 방송들에서도 널리 보도하여야 하겠다고 말씀하시였습니다.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나라일이 그처럼 바쁘신 속에서도 대회문건들도 하나하나 보아주시였습니다.

위대한 대원수님의 세심한 지도밑에 대회준비사업은 성과적으로 추진되여갔습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대회장에 나오시여 대회가 성대히 진행되도록 깊은 관심을 돌려주시였습니다.

대회를 하루 앞둔 10월 19일 밤이였습니다.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대회장으로 꾸려진 인민문화궁전으로 나오시였습니다.

위대한 대원수님께서는 대회의 주석단으로부터 대표석의 맨 뒤좌석에 이르기까지 살펴보시고 대회장이 잘 꾸려진데 대하여 매우 만족해하시였습니다.

대표들의 자리배치안을 료해하시던 위대한 대원수님께서는 맨 앞자리에 청년대표들이 앉게 하는 크나큰 은정을 베풀어주시였습니다.

주석단자리배치에서도 **김일성**대원수님의 가장 가까이에 청년동맹일군들이 앉도록 자리를 정해주신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청년들이 **김일성**대원수님을 몸가까이에 모실수 있도록 주석단을 더 앞으

로 내오게 하시였습니다.

대회장을 꾸리는 사업을 세심히 지도하신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이어 대회를 청년들의 대회답게 생기발랄하고 기백이 넘치게 열정의 분위기속에서 진행하도록 하기 위한 구체적인 문제들에 대해서까지 환히 밝혀주시였습니다.

특히 대회 마지막날에 **김일성**대원수님께서 대회장에 나오시여 연설을 하시게 된다고 하시면서 마지막날 일정을 **김일성**대원수님을 잘 모시도록 짜야 한다고 일군들을 깨우쳐주시였습니다.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김일성**대원수님께서 연설하실 때와 대회를 끝마칠 때 씩씩하게 구호를 부르게 하는것이 좋겠다고 말씀하시였습니다.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대회가 열리게 되는 날 아침에 또다시 대회장에 나오시여 친히 주석단배치도안이며 개막일정계획을 다시금 보아주시면서 대회를 잘 운영하도록 정력적으로 지도하여주시였습니다.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조선로동당의 믿음직한 청년전위가 되자!》, 《조선혁명위업에 무한히 충실한 청년전위가 되자!》**라는 대회에서 부를 구호도 몸소 정해주시였습니다.

드디여 10월 20일 력사적인 사로청 제7차대회가 성대히 열리였습니다.

김일성대원수님과 **김정일**대원수님을 높이 모시고 진행된 사로청 제7차대회에는 수천명의 청년대표들과 함께 남조선청년학생대표단, 재일본조선청년학생대표단 그리고 세계 5대륙의 130여개 나라들에서 온 184개의 대표단이 참가하였습니다.

김정일대원수님의 따뜻한 보살피심속에서 대회는 성과적으로 진행되여나갔습니다.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대회 마지막날에 전체 대회참가자들의 열광적인 환호를 받으시며 **《청년들은 주체혁명위업의 믿음직한 계승자가 되자》**라는 력사적인 연설을 하시였습니다.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연설에서 우리 시대 청년운동과 청년들이 나아갈 앞길을 휘황히 밝혀주시였습니다.

이렇듯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의 정력적인 지도에 의하여 사로청 제7차대회는 영원히 당을 따라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하려는 우리 청년들의 결의대회로, 청년운동에서 새로운 혁명적전환을 마련한 력사적인 대회로 될수 있었습니다.

제 6 과
서해갑문건설을 대담하고 통이 크게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4대자연개조과업의 하나인 서해갑문건설을 대담하고 통이 큰 작전으로 현명하게 이끄시여 80년대속도의 위대한 모범을 창조하시였습니다.

> **4대자연개조과업**
>
> 당중앙위원회 제6기 제4차 전원회의에서 제시
>
> (1981년 10월)
>
> ・30만정보의 간석지개간
>
> ・20만정보의 새땅찾기
>
> ・서해갑문건설
>
> ・태천발전소건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갑문건설을 몇년안으로 끝낼 대담한 결심을 하시고 이 과업을 인민군대에 맡겨주시였습니다.

주체70(1981)년 5월말 어느날이였습니다.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인민무력부의 한 책임일군을 부르시였습니다.

위대한 대원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 일군은 이 시기 날로 더해지는 적들의 책동에 대처할 군사문제를 토의하시려는줄 알고 대원수님께서 계시는 곳으로 갔습니다.

그를 반갑게 맞이하신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자신께서 찾은것은 군사문제때문이 아니라고 하시면서 갑문건설을 인민군대에 맡기

기로 하였는데 자신있는가고 물으시였습니다.

순간 그 지휘관은 선뜻 대답을 드릴수 없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적들과의 싸움에서는 아무것도 두려울것이 없었지만 대자연을 개조해본 경험이 없다나니 걱정이 없지 않았던것입니다. 게다가 서해갑문건설은 20리 날바다를 막고 그우에 대규모의 언제를 쌓아야 하는 매우 어렵고 방대한 공사였습니다.

그의 속마음을 헤아려보신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말을 못하는것을 보니 아무래도 자신이 없는게라고 하시였습니다. 그러시면서 물론 아직 그 누구도 해보지 못한 어렵고 방대한 공사인것만은 사실이라고,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러한 대공사를 능히 해낼수 있는 힘, 다시말하여 담보가 있다고 하시였습니다. 이어 위대한 대원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립적민족경제의 튼튼한 밑천이 있고 갑문건설경험이 있으며 가장 중요하게는 당에 무한히 충직한 일당백의 인민군군인들이 있다고 확신에 넘쳐 말씀하시였습니다.

계속하시여 어떤 나라에서는 그리 크지 않은 갑문을 건설하는데도 몇십년은 걸렸다고 하시면서 그러나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김일성**대원수님께서 바라시는대로 몇년안으로 끝내야 한다고 말씀하시였습니다.

그러시면서 갑문건설을 짧은 기간에 끝낼수 있는 묘안들도 하나하나 밝혀주시였습니다.

김정일대원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안은 그 일군은 신심이 생겨 기어이 갑문건설을 해내고야말겠다고 굳게 결의다졌습니다.

그의 결의를 들으신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인제야 진짜 자신이 있는게로구만.》**라고 하시며 호탕하게 웃으시였습니다.

이처럼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인민군대의 불굴의 투쟁정신을 굳게 믿으시고 그들에게 서해갑문건설을 맡겨주시였으며 필승의 신심과 용기를 안겨주시였습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갑문건설을 대담하고 통

이 크게 벌려나가도록 현명하게 이끌어주시였습니다.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우수한 일군들로 건설지휘부와 기술력량도 꾸려주시고 갑문건설에 필요한 설비와 자재를 우선적으로 보장하는 체계도 세워주시였으며 전국이 갑문건설을 적극 지원하도록 하시였습니다.

그리고 여러차례나 몸소 갑문건설장에 나오시여 공사를 대담하고 통이 크게 벌려나갈 방향과 방도들도 환히 밝혀주시였습니다.

서해갑문건설에서 큰 성과들이 이룩되고있던 주체73(1984)년 4월 어느날 갑문건설장을 찾으신 **김정일**대원수님께서 가물막이언제건설현장에 이르시였을 때였습니다.

수많은 군인들이 충천한 기세로 가물막이언제안에서 질통과 밀차를 가지고 감탕을 처리하고있었습니다.

그것을 보신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안색을 흐리시였습니다.

위대한 대원수님께서는 지금은 현대전의 시대인데 처음부터 현대전을 들이댈 작전을 했어야 할것이라고 하시면서 어떤 기계가 몇대나 필요한가고 물으시였습니다.

뜻밖의 물으심에 지휘관은 당장은 대형불도젤 3대만 있으면 공사를 본때있게 다그쳐보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의 대답을 들으신 위대한 대원수님께서는 이처럼 큰 공사를 담당한 지휘관이 통이 그렇게 작아서야 되겠는가고 하시며 3대가 아니라 30대를 보내주겠다고 말씀하시였습니다.

순간 일군들모두가 크게 놀랐습니다.

위대한 대원수님께서는 놀라움을 금치 못해하는 일군들을 둘러보시며 기초공사를 하자면 불도젤만이 아니라 굴착기도 있고 자동차도 있고 있을것은 다 있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필요한 기계설비들의 가지수와 대수를 손수 계산해보시였습니다.

한동안 생각에 잠기셨던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동행한 한 일군에게 저으기 근엄한 어조로 수령님께서 나라의 튼튼한 경제력을 믿

으시고 서해갑문건설의 웅대한 설계도를 펼치시였다고 하시면서 주체공업의 위력을 어떤 때 시위해보겠는가고, 갑문건설장에서 추가적으로 요구되는 자동차, 불도젤, 굴착기를 비롯한 기계설비들을 한달안으로 보내주어야 하겠다고 말씀하시였습니다.

김정일대원수님의 가르치심을 받들고 온 나라의 기계공장들이 한결같이 일떠섰습니다.

전국이 움직이니 그 힘은 참으로 컸습니다.

김정일대원수님께서 현지지도하신지 며칠 안있어 수많은 현대적인 운수수단들과 기계설비들이 건설장에 들어오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하여 한달도 못되는 기간에 갑문건설장은 말그대로 기계바다를 이루게 되였습니다.

김정일대원수님께서 대담하고 통이 큰 작전으로 서해갑문건설을 현명하게 이끌어주심으로써 불과 5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그처럼 방대한 공사가 완공되고 세계갑문건설력사에서 처음으로 되는 대규모의 갑문이 훌륭히 일떠서게 되였습니다.

참으로 서해갑문건설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의 대담하고 통이 큰 작전, 세련된 령도의 빛나는 결실이며 80년대속도가 안아온 위대한 기적이였습니다.

자립적민족경제 — 남에게 예속되지 않고 제발로 걸어나가는 경제. 다시말하여 자기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며 자기 나라의 자원과 자기 인민의 힘에 의거하는 경제.

가물막이 — 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주변에 림시로 설치하는 물막이구조물.

주체공업 — 주로 자기 나라의 원료에 기초하여 생산을 발전시키는데 중심을 두는 자립적인 공업. 다시말하여 자기 인민의 힘과 자기의 기술, 자기 나라 원료에 기초하여 공업제품에 대한 자기 나라의 수요를 자체로 충족시키는 공업.

제 7 과
백두령장의 담력과 예지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습니다.

《김정일동지는 혁명무력의 최고사령관다운 불굴의 의지와 담력, 뛰여난 지략과 령군술을 지니고있으며 여기에 우리 혁명무력의 끊임없는 강화발전과 백전백승의 담보가 있습니다.》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신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을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 높이 모시였던것은 우리 인민의 크나큰 영광이고 행복이였습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은 그 누구도 따를수 없는 담력을 지니고계신 강철의 령장이시였습니다.

《팀 스피리트83》합동군사연습때의 일이였습니다.

미제는 조선반도주변에 근 20만명의 병력과 비행대, 함선 등 웅근 한 전쟁을 치르고도 남을 수많은 장비들을 동원하여 합동군사연습을 벌렸습니다.

놈들의 이러한 침략책동에 대하여 한 일군으로부터 보고받으신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아마 적들이 우리를 놀래워보자고 하는것 같은데 놈들이 우쭐대며 덤벼들어도 두려울것이 없다고 말씀하시였습니다.

그러시면서 위대한 수령님께서 교시하신바와 같이 우리는 놈들의 《보복》에는 보복으로, 전면전쟁에는 전면전쟁으로 대답할것이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시였습니다.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만일 이번에 적들이 우리에게 덤벼든다면 그때에는 마지막 한놈까지 때려부실것이라고 힘주어 말씀하시였습니다.

산악같이 드놀지 않는 강철의 의지와 담력이 넘치는 말씀이였습니다.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적들의 《팀 스피리트83》합동군사연습이 실전단계에 들어가기 전에 인민군대에 일제히 실동훈련에 들어갈데 대한 명령을 주시였습니다.

위대한 대원수님께서는 실동훈련에 들어갈 때를 잘 정하는것이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적들의 침략적인 훈련을 단번에 짓부셔버릴수 있는 방향과 방도까지 밝혀주시였습니다.

위대한 대원수님의 말씀을 받아안은 순간 그 일군은 불현듯 몇해전에 있었던 일이 떠올랐습니다.

1980년 3월 놈들이 벌린 《팀 스피리트80》합동군사연습때였습니다.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놈들의 연습이 고조에 이르러 놈들이 최전방가까이에로 기여나오는것과 때를 같이하여 분계선가까운 지역에로의 부대들의 기동을 조직할데 대한 지시를 주시였습니다.

즉시에 부대들의 기동이 진행되였습니다.

놈들은 눈이 둥그래졌습니다.

전방가까이에로 잘 무장된 인민군부대들이 움직이자 적들은 인민군대가 쳐들어온다고 소동을 피웠습니다.

그러다보니 놈들의 합동군사연습은 헝클어져 흐지부지되였고 아무런 성과도 없이 끝나고말았습니다.

일군은 그때의 일을 돌이켜볼수록 **김정일**대원수님께서 이번에 또다시 기동연습을 조직할데 대하여 주신 말씀은 참으로 정당하고 현명한것이라는 생각이 가슴뜨겁게 느껴져 저도모르게 무릎을 쳤습니다.

결국 그처럼 요란스럽게 준비하여 진행한 《팀 스피리트83》합동군사연습은 인민군대의 위력에 눌리워 맥빠진 연습으로 되고말았습니다.

이처럼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그 어떤 강적이 덤벼들고 뜻밖의 사태가 조성되여도 언제나 끄떡없는 무비의 담력과 적들이 도저히 가늠할수 없는 기묘한 전술로 적들의 침략적인 훈련을 단번에 짓부

셔버리군 하시였습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은 빛나는 예지를 지니신 강철의 령장이시였습니다.

주체69(1980)년 1월 8일이였습니다.

해발고가 수십m도 안되는 한 자그마한 고지에 화강석이 매장되여있어 어느 한 기업소에서 그것을 캐가고있었습니다.

만약 그곳에서 계속 화강석을 캐내면 얼마 안가서 고지가 없어질수 있었습니다.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이런 사실을 보고받으시고 일군들에게 우리가 그 고지를 없애면 4~5km 더 들어와서 방어해야 하기때문에 좋지 않다고 말씀하시였습니다.

그러시면서 화강석을 캐내지 않도록 할데 대한 지시를 주시였습니다.

위대한 대원수님의 말씀을 받고서야 일군들은 벌방지대를 방어하는데서 그 고지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닫게 되였습니다.

그해 11월 어느날이였습니다.

김정일대원수님을 모시고 어느 한 부대의 훈련장에서 부대기동훈련이 진행되였습니다.

잠시동안 훈련장을 바라보시던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부대가 기동이 빠르고 화력이 강한 무장으로 장비되였다고 못내 만족해하시면서 적들이 보면 기겁할것이라고 말씀하시였습니다.

그러시면서 현대전쟁은 기계화전쟁이며 기름전쟁이라고 힘주어 말씀하시였습니다.

현대전쟁을 새롭게 평가하신 위대한 대원수님의 말씀에 일군들은 놀라움을 금할수 없었습니다.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기름이 없이는 기계화부대들이 한걸음도 움직일수 없으며 현대전쟁을 수행할수 없다고 하시면서 기름을 미리 장만하는 문제에 이르기까지 하나하나 가르쳐주시였습니다.

위대한 대원수님께서는 현대전쟁에서 또한 중요한것은 탄약을 원만히 보장하는것이라고 하시며 지금은 무기들이 반자동화, 자동화되였기때문에 총포탄을 있는대로 쏘게 되여있다고 말씀하시였습니다.

계속하시여 현대전쟁에서는 탄약을 누가 더 많이 잘 보장하는가에 따라 이기고 지는것이 달려있다고 하시면서 현대전쟁은 알전쟁이라고 말할수 있다고 힘주어 말씀하시였습니다.

현대전쟁은 기름전쟁이며 알전쟁! 참으로 귀중한 말씀이였습니다.

이처럼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그 누구도 따를수 없는 빛나는 군사적예지를 지니시고 인민군대의 싸움준비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을 뚜렷이 밝혀주시였습니다.

오늘 우리 인민군대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 그대로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선생님을 혁명무력의 최고사령관으로 높이 모시여 백전백승의 혁명적무장력으로서의 위용을 남김없이 떨치고있습니다.

전면전쟁 — 한 나라나 또는 세계적인 범위에서 방대한 군사력이 동원되여 벌리는 전쟁.

현대전쟁 — 복잡한 전투기술기재들이 많이 동원되며 고도로 조직화되고 립체적이며 과학적인 전쟁.

제 8 과
평양제1중학교를 찾으시여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1980년대에 교육혁명의 불길을 지펴주시고 평양제1중학교를 수재교육의 본보기로 하여 학교교육의 질을 결정적으로 높이도록 현명하게 이끌어주시였습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평양제1중학교를 전국의 본보기가 되게 높은 수준에서 건설하도록 이끌어주시였습니다.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경치좋은 보통강기슭에 학교터전을 잡아주시고 친히 설계가들을 몸가까이 부르시여 학교를 훌륭히 건설할 수 있게 설계방향을 하나하나 밝혀주시였습니다.

위대한 대원수님의 사랑속에 학교건설이 본격적으로 진행되였습니다.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학교건설정형을 알아보시고 건설을 빨리 다그칠데 대하여 가르쳐주시였고 실험기구와 교구비품들도 높은 수준에서 갖추도록 온갖 대책을 다 취해주시였습니다.

우리 학생들에게 세상에서 제일 좋고 훌륭한것을 마련해주시려는 **김정일**대원수님의 뜨거운 사랑에 떠받들려 평양제1중학교 새 교사가 현대적으로 보란듯이 일떠서게 되였습니다.

주체73(1984)년 4월 어느날이였습니다.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나라일에 그처럼 바쁘신 가운데서도 새로 일떠선 평양제1중학교를 찾아주시였습니다.

비오는 궂은 날씨였지만 아침 일찌기 학교에 나오신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정중히 인사를 올리는 일군들의 손을 일일이 잡아주시며 그동안 학교를 건설하느라 수고들이 많았겠다고 다정히 말씀하시면서 교사를 현대적으로 잘 지었다고 대단히 만족해하시였습니다.

한참후에야 현관에 들어서신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새로 건설한 학교의 이름을 평양제1고등중학교(현재 평양제1중학교)라고 부르는것이 좋겠다고 말씀하시였습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이날 오랜 시간에 걸쳐 학교를 돌아보시면서 학교교육에서 근본적인 전환을 가져오기 위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습니다.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학생들을 어릴 때부터 **김일성**대원수님의 혁명사상으로 교양하여야 한다고 가르치시였습니다.

먼저 1층에 있는 강당에 들어서시여 무대쪽을 주의깊게 살펴보시던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강당에 써붙인 구호들을 고쳐야 하겠다고 말씀하시였습니다.

순간 일군들의 눈길이 일시에 무대쪽에 쏠리였습니다.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일군들을 둘러보시며 당의 기본구호라고 하여 어린 학생들이 공부하는 학교들에도 기관, 기업소들과 꼭같이 써붙이면 되겠는가고 하시면서 학생들의 심리와 성격에 맞게 구호를 고치도록 하시였습니다.

그러시고는 일군들에게 구호를 고치라고 한 의도를 잘 아는것이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우리는 학생들에게 어렸을 때부터 조국, 당에 대한 인식을 바로주어 그들로 하여금 리수복영웅처럼 사회주의조국을 열렬히 사랑하며 어머니당이 부를 때에는 하나밖에 없는 조국을 위하여 둘도 없는 목숨도 서슴없이 바쳐 싸우도록 교양하여야 한다고, 그러자면 학생들을 어릴 때부터 사상은 수령님의 혁명사상으로 교양하고 만세는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 만세!》, 《사랑하는 우리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만세!》를 부르게 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습니다.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학생들을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으로 무장시키지 않으면 그들이 소유한 과학과 기술이 조국의 부강발전에 참답게 이바지하게 될수 없다고 하시면서 이 사업에서 형식주의를 하지 말고 실속있게 할데 대하여서도 가르쳐주시였습니다.

《**김일성**원수님혁명활동연구실》(당시)에 들리신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어느 시간에 연구실을 운영하고있는가를 알아보시고나서 학교의 특성에 맞게 잘 운영할데 대하여 말씀하시였습니다.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연구실을 통한 사상교양사업을 내용있게, 실속있게 할데 대하여 강조하시고나서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으로 무장시키는 교양사업을 주어진 조건에 맞게 그리고 다양하게 벌릴데 대한 가르치심을 주시였습니다.

이어 여러 실험실들을 돌아보시며 기초과학교육을 강화하는데 큰 힘을 넣을데 대하여 가르치시였습니다.

위대한 대원수님께서는 7층에 있는 물리실험실에 들리시였습니다.

증기기관모형이며 력학기구들, 천평 등 실험기구들을 하나하나 보아주신 위대한 대원수님께서는 물리실험실을 잘 꾸렸는데 건물에 비하여 실험기구들이 초라하고 벽에 걸린 직관판의 내용도 그전에 보다 별로 달라진것이 없다고 말씀하시였습니다.

위대한 대원수님께서는 지금 학교교육이 현실발전의 요구에 따라서지 못하고 과학기술을 발전시키는데 크게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고 하시면서 교육사업을 발전시키는데서 중요한것은 중학교교육의 질을 높이는것이라고 말씀하시였습니다.

물리실험실을 나서신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8층에 있는 전기실험실을 돌아보시고 이어 9층 계단을 오르시여 화학실험실에 들리시였습니다.

위대한 대원수님께서는 실험기구들을 넣은 장이며 화학제품표본들까지 구체적으로 보시고 중학교에서 수학, 물리, 화학 등 기초과학교육을 높은 수준에서 진행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습니다.

그리고 중학교의 기초과학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시범을 평양제1중학교에서 창조하고 일반화하여 중등일반교육에서 질적인 변화를 가져올데 대하여 거듭 강조하시였습니다.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10층에 들리시여 생물실험실과 체육무용실, 음악련습실까지 다 돌아보시고 계단을 내리시였습니다.

이밖에도 보통강가에 자동차운전실습장을 꾸리고 학생들이 자동차운전실습을 할수 있도록 조건을 보장해주는 문제와 같은 세심한 가르치심을 주시였습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의 현지지도는 교육혁명의 돌파구를 열고 중등일반교육의 질을 결정적으로 높여나가는데서 전환적인 계기로 되였습니다.

형식주의 — 사업을 깊이 연구하지 않고 걸치레만 하며 일을 헐하게 되는 대로 하는 사업태도.

증기기관 — 높은 압력의 김을 리용하여 기통안의 피스톤을 움직여 동력을 얻어내는 장치.

력학기구 — 물체들사이의 운동과 호상작용을 연구하는 기구.

제 9 과
8월3일인민소비품

우리 당의 뜨거운 사랑과 은정속에 인민들의 행복한 생활이 활짝 꽃펴날수록 질좋은 소비품을 더 많이 리용하려는 사람들의 요구는 날을 따라 높아지게 되였습니다.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늘어나는 인민들의 소비품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켜주시기 위하여 몸소 경공업혁명을 일으키기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이끌어주시였습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여러가지 인민소비품들을 많이 생산할데 대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습니다.

주체73(1984)년 2월 16일이였습니다.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이날 몇몇 책임일군들을 부르시였습니다.

온 나라 전체 인민들이 민족최대의 명절을 뜻깊게 맞이하고있는 경사스러운 날에 위대한 대원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일군들모두의 얼굴에는 여느때없이 숙연한 빛이 어려있었습니다.

김정일대원수님께서 방에 들어서시자 일군들은 대원수님의 건강을 삼가 축원하는 인사를 드리였습니다.

위대한 대원수님께서는 고맙다고 하시며 그들의 손을 일일이 잡아주시고나서 협의회를 하자고 불렀다고 하시였습니다. 그러시며

오늘 협의회에서는 인민생활을 한계단 더 높이기 위한 대책적인 문제를 토의하자고 말씀하시였습니다.

일군들로부터 인민생활에 대한 실태를 료해하신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인민생활을 높이기 위하여서는 경공업혁명을 일으켜야 한다고 하시였습니다.

그러시고는 인민소비품생산에서 중요한것은 일용필수품의 가지수를 늘이고 그 질을 높이는것이라고 말씀하시였습니다.

일군들은 무거운 자책감으로 하여 아무 말씀도 드리지 못하였습니다.

위대한 대원수님께서는 일군들에게 인민들에 대한 헌신적복무정신이 있어야 인민들이 생활에서 느끼는 자그마한 불편도 크게 여길줄 알고 인민들의 사소한 생활상요구도 중하게 대할줄 알겠는데 그런 정신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시였습니다.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일용잡화의 경우에는 가지수가 많고 량적수요가 대단히 높기때문에 몇개의 전문공장에서만 생산해가지고서는 인민들의 수요를 충족시킬수 없다고 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습니다.

《일용잡화생산을 군중적운동으로 벌려야 하겠습니다.

…

금속공장, 기계공장을 비롯한 인민경제 여러 부문 공장, 기업소들에서 생활필수품을 생산하는 직장이나 작업반을 잘 꾸리고 공장에서 나오는 부산물과 페설물로 여러가지 일용잡화를 많이 생산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가두인민반들에도 가내작업반을 조직하고 일용잡화를 많이 생산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생활필수품직장과 작업반, 가내작업반을 많이 조직할데 대한 **김정일**대원수님의 가르치심은 온갖 예비와 가능성을 남김없이 동원리용하여 인민소비품생산을 늘일수 있게 하는 중요한 조치였습니다.

김정일대원수님의 말씀을 높이 받들고 평양시안의 공장, 기업소들에서는 생활필수품을 생산하는 직장과 작업반을 더 많이 내오고가내작업반도 대대적으로 꾸렸습니다.

얼마후부터 여기서 갖가지 일용소비품들이 나오기 시작하였습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직매점들을 잘 꾸리고 인민들에게 갖가지 소비품들을 팔아주도록 하는 조치를 취해주시였습니다.

그해 8월 3일이였습니다.

이날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여러가지 견본품들이 전시되여있는 평양시경공업제품전시장을 돌아보시였습니다.

드넓은 전시장에는 여러가지 가정용품들과 학용품, 문화용품 그리고 가지수를 가늠할수 없이 많은 일용잡화들이 진렬되여있었습니다.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못내 만족하신듯 굉장하다고 하시면서 진렬대로 천천히 걸음을 옮기시였습니다.

시안의 여러 구역들에서 만들어 전시한 2만여점의 제품들이 진렬된 전시장을 오랜 시간에 걸쳐 다 돌아보신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예상외로 인민소비품들이 많이 나왔다고 만족해하시면서 누구에게라없이 동무들이 이것으로 만세를 부르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전시된 제품들이 견본품으로 그치지 않겠는가 말입니다라고 물으시였습니다.

일군들은 인민소비품생산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켜 오늘의 이 전시장에 진렬된 모든 제품들이 인민들에게 실지 차례지도록 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위대한 대원수님께서는 동무들을 믿겠다고 하시면서 이 소비품들이 실지 인민들에게 차례지게 하자면 무슨 방법이 있어야 하겠는데 이에 대하여 생각되는것이 있으면 말해보라고 하시였습니다.

일군들은 선뜻 대답을 드리지 못하였습니다. 천천히 걸음을 옮기시던 위대한 대원수님께서는 일군들에게 구역들에 직매점을 내올데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가내편의봉사망들에서 만든 인민소비품은 구역에 직매점을 꾸리고 거기서 팔데 대한 가르치심을 주시였습니다.

위대한 대원수님께서는 직매점을 꾸릴바에는 잘 꾸려야 한다고 하시면서 직매점운영에서 나서는 문제들에 대해서까지 구체적으로 가르쳐주시였습니다.

위대한 대원수님께서 취해주신 조치에 의하여 그후 평양시에는 물론 전국의 시, 군, 구역들에 직매점들이 꾸려지고 매대마다에는 8월3일인민소비품으로 불리우기 시작한 갖가지 제품들이 가득차 직매점은 언제나 사람들로 흥성거리게 되였습니다.

오늘 날로 높아지는 인민들의 생활상요구에 맞게 널리 생산되여 리용되는 8월3일인민소비품은 이렇게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의 인민에 대한 뜨거운 사랑과 은정속에 생겨났습니다.

일용필수품 — 인민들의 생활에서 흔히 쓰이며 반드시 있어야 할 물품.

견본품 — 본보기로 만든 물건.

직매점 — 생산자인 기관, 기업소가 생산물의 일부를 직접 소비자들에게 파는 상점.

제 10 과
은정어린 구호물자

1980년대초 우리 나라에서는 분단력사상 처음으로 남조선수재민들에게 수많은 구호물자를 보내주는 력사적인 사변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뜨거운 동포애를 지니신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의 사랑이 낳은 또 하나의 기적같은 사실입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큰물피해를 입은 남조선수재민들에게 구호물자를 보내주도록 하시였습니다.

주체73(1984)년 8월말 어느날이였습니다.

인민경제 여러 부문 사업을 현지에서 지도하시던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날이 저물어서야 숙소로 돌아오시였습니다.

밖에서는 폭우가 쏟아지고있었습니다.

창가에 서시여 남쪽하늘을 오래도록 바라보시던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일군들에게 비가 자꾸 내리니 남조선인민들이 걱정된다고 하시면서 남조선인민들에 대한 생각만 떠오르면 자신의 마음이 괴롭다고 하시였습니다.

김정일대원수님께서 그처럼 걱정하시였건만 그칠새없이 계속 내린 폭우로 하여 남조선의 여러 지역에서 전례없는 큰물이 나고말았습니다.

단번에 수백명이 죽고 수십만명이 집과 재산을 잃고 한지에 나앉게 되였습니다.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곧 일군들의 협의회를 소집하시고 곤난할 때 혈육이라고, 이런 때 우리가 남조선인민들을 도와주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우리는 수해를 입은 남조선리재민들에게 뜨거운 혈육의 정이 깃든 구호물자를 보내주어야 하겠다고 말씀하시였습니다. 그러시고는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대책을 세울데 대하여 말씀하시

였습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구호물자를 보낼데 대한 우리의 제의가 실현되도록 현명하게 이끌어주시였습니다.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남조선리재민들에게 구호물자를 보낼데 대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적십자회 중앙위원회결정을 발표하도록 하시였습니다.

그리하여 9월 8일 **김정일**대원수님의 동포애적시책을 받들고 적십자회 중앙위원회는 남조선수재민들에게 쌀과 천, 세멘트, 의약품을 구호물자로 보낸다는 결정을 채택하고 방송을 통하여 보도하였습니다.

이 소식이 온 세상에 전해지자 세상사람들은 《남조선수재민들을 구원할 사람은 이북의 형제들뿐이다.》라고 감탄하였습니다.

이렇게 되자 바빠맞은것은 남조선괴뢰도당이였습니다.

수재민들에 대한 아무런 구제대책도 세우지 못한 남조선괴뢰도당은 그렇게 많은 량의 물자를 우리가 보장하지 못할것이라고 허튼수작을 하면서 9월안으로 몽땅 보내주어야 접수하겠다고 《성명》까지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오산이였습니다.

놈들의 《성명》이 나온지 4시간도 못되여 우리측 적십자회 중앙위원회는 놈들에게 구호물자를 받겠으면 판문점으로 나오라는 편지를 보냈습니다.

수세에 빠진 괴뢰들은 하는수없이 판문점으로 나와 우리의 구호물자를 받아가겠다고 하였습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남녘동포들에게 보내는 구호물자를 가장 빠른 기간에 높은 수준에서 보장하도록 전당, 전민을 불러일으키시였습니다.

그해 9월 중순 어느날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정무원(오늘의 내각)의 책임일군들로 중앙지휘부를 조직하여주시였습니다.

그리고 구호물자를 높은 수준에서 잘 준비하며 그 수송도 불이

번쩍나게 다그칠데 대한 과업을 제시하시였습니다.

다음날 또다시 일군들에게 이번에 남조선수해지역리재민들에게 보내는 구호물자는 수령님의 권위와 관련되는 문제이므로 높은 수준에서 질적으로 잘 준비하여야 한다는 말씀을 주시였습니다.

그러시고는 근 2 000량의 화차와 수천대의 화물자동차를 동원하여 구호물자를 수송하도록 특별지시를 하달하시였습니다.

불과 10여일이라는 짧은 기간에 구호물자전량을 높은 수준에서 포장하여 전부 수송한다는것은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니였습니다.

그러나 **김정일**대원수님의 높은 뜻을 받들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한주일도 되나마나한 기간에 그 많은 구호물자들을 제정된 장소에 기차와 자동차, 배로 다 가져다놓는 기적을 창조하였습니다.

우리가 보내준 구호물자
쌀 5만석(7 500t)
천 50만m
세멘트 10만t
많은 량의 의약품
(모두 1 800만US＄에 해당됨.)

9월말 드디여 구호물자를 실은 수백대의 화물자동차들이 우리 인민들의 열렬한 환송을 받으며 분렬의 장벽인 군사분계선을 넘어갔고 《향산》호, 《연풍》호를 비롯한 대형짐배들이 남포와 해주, 원산항을 떠나 남조선의 인천항과 북평항에 닻을 내렸습니다.

이것은 조국분단 40년력사에 처음있은 일이였습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구호물자를 넘겨주고 받는 과정에 있을수 있는 놈들의 책동을 예견하시고 앞질러 대응책을 세워나가시였습니다.

1만 2천t의 세멘트를 싣고가던 우리의 《대동강》호가 옛전설에 나오는 심청이가 임당수에 빠져죽었다는 서해의 장산곶부근에서 사고가 나는 뜻밖의 일이 생겼을 때였습니다.

남조선괴뢰들은 이 사고를 우리 공화국을 헐뜯기 위한 《자료》로 리용하려고 책동하였습니다. 놈들은 우리가 외국에서 세멘트를

수입하지 못하여 이런 사고를 일으켰다는 허위보도를 날릴 모략까지 꾸미였습니다.

놈들의 이런 속심을 꿰뚫어보신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세멘트를 추가적으로 수송하겠다는 통지문을 보내게 하시고 9월 30일 밤에 보충선박들을 출항시킬데 대한 단호한 지시를 주시였습니다.

그리하여 보충선박들이 9월 30일 밤에 인천항을 향해 떠났고 우리의 배들을 안내하기 위하여 놈들은 인천항에 나오지 않을수 없었습니다.

이처럼 **김정일**대원수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뜨거운 동포애가 담긴 우리의 구호물자는 남조선리재민들에게 정확히 가닿게 되였습니다.

이 위대한 승리는 오직 전체 조선민족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시였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의 숭고한 민족애와 통이 크고 세련된 령도가 낳은 빛나는 결실이였습니다.

리재민 — 뜻밖의 재해를 당한 주민.

제 11 과
제13차 세계청년학생축전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진행된 제13차 세계청년학생축전은 세계5대륙의 청년학생들이 한자리에 모여 세계의 평화와 인류의 광명한 미래를 위하여 어깨겯고 싸워나가는 새 세대 청년들의 련대성과 단결의 위력을 온 세상에 시위한 대축전이였습니다.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제13차 세계청년학생축전이 축전력사에서 그 류례를 찾아볼수 없는 가장 훌륭한 축전으로 되도록

현명하게 이끌어주시였습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습니다.

《우리는 제13차 세계청년학생축전을 반제, 평화, 친선의 리념에 맞게 잘 진행하여 우리 청년들과 세계 진보적청년들과의 련대성을 더욱 강화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축전준비를 위한 대상건설사업을 통이 크게 설계하시고 전국가적, 전인민적사업으로 힘있게 벌려나가도록 하시였습니다.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평양축전준비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광복거리를 비롯하여 무려 260여개나 되는 축전대상건설을 진두에서 정력적으로 이끌어주시였습니다.

축전준비를 위한 방대한 규모의 건설을 불과 2～3년사이에 높은 수준에서 완공한다는것은 보통상식으로서는 도저히 생각할수 없는 일이였습니다.

하지만 모든것을 대담하게 구상하고 실천해나가신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그 방대한 공사를 자체의 힘과 기술로 짧은 기간에 완공하실 거창한 설계도를 펼치시고 통이 큰 작전을 벌리시였습니다.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경기장들과 극장, 영화관 등 축전행사에 리용해야 할 중요대상건물들의 형성도안들과 설계도면들을 구체적으로 보아주시였습니다.

그리고 건설이 한창 진행될 때에는 몸소 건설장에 나오시여 건설대상들의 규모로부터 지어 개별적인 방들에 이르기까지 세심한 지도를 주시였습니다.

우리 인민들과 청년들은 **김정일**대원수님의 높은 뜻을 받들고 축전대상건설에 한사람같이 떨쳐나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과 대중적영웅주의를 남김없이 발휘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광복거리와 청춘거리, 5월1일경기장, 동평양대극장

등 수많은 대건축물들이 짧은 기간에 훌륭히 완공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 구역들에 청년회관, 민족구락부로 리용할 건축물들이 일떠섰고 인민문화궁전, 평양체육관을 비롯한 여러 행사장들이 훌륭히 꾸려지게 되였습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제13차 세계청년학생축전의 여러 행사들을 높은 수준에서 다채롭고 특색있게 준비하도록 깊은 관심을 돌려주시였습니다.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혁명과 건설의 전반사업을 이끄시는 바쁘신 가운데서도 평양축전을 세계청년운동발전에서 일대 전환의 계기로 되게 하시려고 무려 1 000여점의 형성도안을 보아주시고 축전행사준비에서 나서는 크고작은 문제들을 지도해주시였습니다.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개막행사와 페막행사가 기본이라고 하시면서 여기에 힘을 넣어 특색있게 잘 준비하도록 하시였습니다. 그리고 축전의 봉화대를 경기장의 지붕우에 설치하며 개막을 알리는 신호수들이 고구려시기의 무사복을 입고 북에 맞추어 뿔나팔을 불도록 하여주시였습니다.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축전기간에 진행되는 련대성집회들과 친선모임, 공예미술작품전시회, 집단체조를 비롯한 여러가지 행사들을 높은 수준에서 진행할수 있게 세심히 이끌어주시였습니다.

이렇듯 **김정일**대원수님께서 축전준비를 빈틈없이 지도해주심으로써 개페막행사를 비롯한 모든 행사들을 성과적으로 보장할수 있게 되였습니다.

제13차 세계청년학생축전 참가규모

(기간 : 1989년 7월 1일—7월 8일)

180개 나라에서 1 245개의 청년학생조직대표, 64개의 국제 및 지역기구대표를 비롯하여 2만여명의 외국인 참가.

여러 나라 국가수반을 비롯하여 90개 나라에서 당, 국가, 정부수반들을 포함한 높은 급의 인사들이 명예손님으로 참가.

남조선의 《전대협》(한총련)대표 참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의 세심한 보살피심에 의하여 제13차 세계청년학생축전은 축전력사상 전례없는 방대한 규모에서 가장 훌륭하게 진행되였습니다.

제13차 세계청년학생축전은 전세계 진보적인민들과 청년학생들의 커다란 관심과 기대속에서 주체78(1989)년 7월 1일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과 **김정일**대원수님을 모시고 주체조국의 수도 평양에서 성대히 개막되였습니다.

평양축전행사에서 가장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것은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5월1일경기장에서 성대히 진행된 축전개막과 폐막행사였습니다.

행사규모와 조직성, 규률성에 있어서 축전력사상 그 류례를 찾아볼수 없이 높은 수준에서 진행된 개막과 폐막행사를 보고 세계 5대륙에서 온 축전참가자들은 너무도 황홀하고 신비스러워 연방 환성을 올리며 어쩔바를 몰라하였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 출판보도물들도 《평양에서 열린 제13차 세계청년학생축전 개막식은 축전운동력사에서 가장 훌륭한 축전》, 《완전무결한 축전》이라고 찬사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축전기간 500여개 장소에서 총 300여건의 각종 정치, 문화예술, 체육행사 등 다양한 행사들이 대성황리에 진행되였습니다.

참으로 제13차 세계청년학생축전은 《반제련대성, 평화와 친선을 위하여!》라는 구호밑에 반제투쟁과 평화를 옹호고수하기 위한 투쟁에서 세계청년학생들의 련대성을 강화하고 세계청년운동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킨 뜻깊은 대정치축전이였습니다.

특히 제13차 세계청년학생축전을 통하여 조선인민과 세계 진보적인민들과의 친선단결이 더욱 두터워지고 우리 혁명위업에 대한 국제적련대성의 목소리가 더욱 높아지게 되였습니다.

이처럼 평양축전이 40여년의 세계청년학생축전력사에서 일찌기 있어본적이 없는 대축전으로 성황리에 진행될수 있은것은 전적

으로 축전준비로부터 축전행사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으로 지도하여 주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의 빛나는 예지와 탁월한 령도의 결과였습니다.

제 12 과
통쾌하게 받아내신 담보서한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조미대결전을 승리에로 이끄시여 미제의 거만한 코대를 꺾어놓고 우리 공화국의 존엄과 위용을 다시금 온 세상에 떨치시였습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습니다.

《우리의 반제반미투쟁은 가장 준엄한 조국보위전이며 사회주의수호전이였습니다.》

우리 공화국을 눈에 든 가시처럼 여기던 미제국주의자들은 90년대초에 이르러 여러 사회주의나라들이 무너지게 되자 사회주의보루인 우리 나라를 고립압살하려고 미친듯이 날뛰였습니다.

놈들은 그 무슨 《핵무기개발의혹》설을 들고나오면서 국제원자력기구까지 동원하여 우리 나라에 대한 특별사찰을 강요해나섰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대규모의 《팀 스피리트93》합동군사연습까지 벌려놓고 우리를 군사적으로 위협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나라에는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모를 위험한 정세가 조성되고있었습니다.

이러한 때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단호한 조치로 적들에게 심대한 타격을 주시고 놈들을 조미회담장에 끌어내시였습니다.

주체82(1993)년 3월초 어느날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인민무

력부의 한 책임일군을 전화로 찾으시였습니다.

위대한 대원수님께서는 인민군부대들의 전투동원준비상태를 확인하시고나서 준전시상태선포와 관련한 최고사령관명령을 내려보내겠으니 조직사업을 미리 짜고들어야 하겠다고 말씀하시였습니다.

그 일군은 기쁨을 금치 못하며 《위대한 장군님! 이젠 됐습니다. 만단의 준비를 갖추겠습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자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우리 한번 미국놈들의 명줄을 쥐고 흔들어봅시다.》**라고 자신만만한 어조로 말씀하시였습니다.

이때로부터 얼마후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전국, 전민, 전군에 준전시상태를 선포함에 대한 최고사령관명령을 하달하시였습니다.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명령이 온 세상에 공포되자 미제와 남조선괴뢰들은 청천벽력과 같은 폭탄선언에 넋을 잃고 갈팡질팡하였습니다.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적들을 계속 수세에 빠뜨리기 위하여 최고사령관명령이 하달된지 4일만에는 또다시 우리 나라가 핵무기전파방지조약에서 탈퇴한다는것을 선언하는 공화국정부성명을 발표하도록 하시였습니다.

핵무기전파방지조약에서의 탈퇴선언은 핵사찰을 구실로 우리의 목을 조이려던 미제와 그 추종분자들에게 심대한 타격을 안겨준 무서운 폭탄선언이였습니다.

김정일대원수님의 무비의 담력과 배짱앞에서 완전히 기가 꺾이고 바빠맞은 미국놈들은 하는수없이 우리와 회담을 하자고 제의해나오지 않을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조미회담은 1993년 6월부터 다음해 10월까지 3단계에 걸쳐 진행되였습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천리혜안의 예지와 탁월한 지략으로 조미회담이 성과적으로 진행되도록 현명하게 이끌어주시였습니다.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우리 일군들에게 회담에서 견지해야 할 자세와 립장을 밝혀주시고 신심을 안겨주시였습니다.

주체83(1994)년 8월 회담에 참가할 우리 대표단이 조국을 떠나기 전날 밤이였습니다.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친히 대표단 단장을 만나주시고 대표단 성원들에게 자신의 인사를 전해주라고 말씀하시고나서 모든 동무들이 신심을 가지고 투쟁을 잘해야 한다고 고무하시였습니다.

계속하여 미국놈들의 제국주의본성은 갈데가 없다는것을 철저히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하시였습니다.

위대한 대원수님의 가르치심은 조미회담에서 우리 일군들이 변함없이 견지하여야 할 자세와 립장을 밝혀준 강령적지침이였습니다.

일군들은 벌써 배짱이 생기고 승리의 신심이 넘쳐났습니다.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동무들이 이번 조미회담에서 투쟁을 잘하고 돌아오기를 바란다고 거듭 믿음을 안겨주시였습니다.

백두령장의 슬기와 담력을 받아안은 대표단성원들은 자신만만하게 적들과의 대결전에 나섰습니다.

미국놈들은 이 회담에서도 또다시 우리가 접수할수 없는 강도적인 요구를 들고나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대표단성원들은 위대한 대원수님께서 가르쳐주신대로 배심있게 적들의 요구를 물리치면서 주동적으로 회담을 끌고나갔습니다.

그리하여 회담을 통하여 우리를 어째보려던 미제의 교활한 술책이 파탄되고 조미회담의 성명문이 채택발표되게 되였습니다.

이것은 조미회담에서 우리 공화국이 거둔 커다란 승리였습니다.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이미 거둔 성과에 토대하여 그후 회담에서도 미국놈들에게 조금도 양보하지 말고 우리의 정당한 요구를 관철해나가도록 이끌어주시였습니다.

그리하여 한달 가까이 진행된 그후 조미회담에서 우리 대표단은 **김정일**대원수님께서 안겨주신 지략과 담력으로 적들을 련속 타승하고 우리의 요구를 관철할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여 미국대통령까지도 **김정일**대원수님께 조미기본합의문을 리행할것을 약속하는 담보서한을 보내지 않으면 안되게 되였습니다.

조미기본합의문채택과 미국대통령의 담보서한을 받아낸것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의 외교전략의 빛나는 승리였으며 미제의 거만한 코대를 꺾어버리고 우리 공화국의 존엄과 위력을 다시금 온 세상에 떨친 중대사변이였습니다.

보루 – 적의 그 어떤 공격도 막을수 있게 튼튼히 쌓은 요새.

핵사찰 – 국제원자력기구가 이 기구에 망라된 나라들의 핵활동정형을 현지에서 검증하는 활동.

제 13 과
《우리 인민은 참으로 좋은 인민입니다》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혁명과 건설을 령도하시면서 우리 인민을어떤 역경속에서도 오직 자기 수령과 령도자만을 믿고 받들줄 아는 충직한 인민으로 키워주시였습니다.

온 나라가 천만뜻밖에 대국상을 당하고 슬픔에 잠겨있던 잊을수 없는 력사의 나날에 우리 인민들은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의 영생을 바라며 자기들의 깨끗한 충실성을 남김없이 발휘하였습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 서거하신 후 우리 인민들속에서 발휘된 뜨거운 충실성에 대하여 뜻깊은 말씀을 주시였습니다.

온 나라 전체 인민이 낮과 밤을 이어가며 **김일성**대원수님을 추모하던 주체83(1994)년 7월 어느날 밤이였습니다.

이날도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우리 인민들의 슬픔을 한가슴에 안으신채 **김일성**대원수님의 동상이 모셔져있는 만수대언덕으로 오르시였습니다.

며칠째 쏟아져내리는 폭우는 그날도 그칠념을 하지 않고 계속 억수로 내리고있었습니다.

김일성대원수님을 목놓아부르며 만수대언덕으로 끝없이 오르는 사람들은 누구도 우산을 들거나 비옷을 입을념을 하지 않고있었습니다.

그들가운데는 화환을 든 댓명의 청년학생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온 몸이 비에 흠뻑 젖었지만 웃옷을 벗어 **김일성**대원수님의 동상에 드릴 화환의 꽃잎이 젖지 않게 하려고 애쓰고있었습니다.

오래동안 한자리에 계시면서 청년학생들의 기특한 소행을 바라보시는 **김정일**대원수님의 눈가에는 뜨거운것이 맺히였습니다.

슬픔속에 어느덧 날이 흘러 가슴아픈 영결행사가 있은지 이틀째되는 날 새벽이였습니다.

이날도 꼬박 뜬눈으로 밤을 지새우신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아픈 마음을 달래시며 또다시 만수대언덕으로 오르시였습니다.

새벽 3시가 되여오건만 **김일성**대원수님의 동상을 찾아오는 사람들의 물결은 그치지 않고있었습니다. 그들은 저저마다 동상앞에서 **김일성**대원수님의 유훈대로 **김정일**대원수님을 잘 받들어나갈 맹세들을 다지고있었습니다.

깊은 밤, 새벽에도 쉬임없이 찾는 인민들의 모습을 크나큰 감동속에 지켜보고계시던 **김정일**대원수님의 마음속에는 **김일성**대원수님을 온 나라 가정의 어버이로 높이 받들어모셔온 우리 인민들이 애도의 나날에 보여준 진정에 넘치는 모습이 좀처럼 떠나지 않으시였습니다.

그때의 감동이 너무도 크시여 후날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애도기간에 있은 일들을 감회깊이 회고하시였습니다.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우리 인민들속에서 **김일성**대원수님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이 뜨겁게 발휘되였다고 하시면서 정말 우리 인민은 자기의 수령을 흠모하고 받드는 사상과 풍모가 세계 그 어느 나라 인민들과도 대비할수 없이 고상한 인민이라고 말씀하시였습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습니다.

《우리 인민은 참으로 좋은 인민입니다. 우리 인민처럼 훌륭한 인민은 이 세상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수 없습니다.》

우리 인민은 참으로 좋은 인민이라고,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인민이라고 거듭 말씀하시는 **김정일**대원수님의 마음에는 훌륭한 인민을 키워주신 **김일성**대원수님의 불멸의 혁명업적을 길이 빛내여나가실 굳은 의지가 어리여있었습니다.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이어 우리가 지금 제국주의자들과의 대결속에서 사회주의를 지켜나가고있는것은 훌륭한 인민을 가지고있기때문이라고 하시였습니다.

자기 수령, 자기 령도자를 믿고따르는 우리 인민의 충실성은 날이 갈수록 더욱 뜨겁게 불타올랐습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주체84(1995)년 7월 어느날에도 우리 인민은 참 좋은 인민이라는 말씀을 하시였습니다.

이날 새로 꾸려진 금수산기념궁전(당시)을 다 돌아보신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시운전을 하게 된 궤도전차에 몸소 오르시였습니다.

위대한 대원수님을 모신 궤도전차는 궁전앞 종점을 떠나 달리기 시작하였습니다.

궤도전차가 지하철도 삼흥역을 가까이하고있을 때였습니다.

차창밖에서 《장군님이시다!》하는 웨침소리가 나더니 일시에 만세의 환호성이 터져올랐습니다.

금수산기념궁전 주변일대를 정리하고있던 수많은 시민들과 청년학생들이 궤도전차에 계시는 위대한 대원수님을 알아뵙고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 만세!》를 목청껏 부르며 달려왔습니다.

위대한 대원수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시여 열광적으로 환호하는 군중들을 향해 다정히 손을 들어 답례를 보내시였습니다.

궤도전차가 룡흥돌이장을 거쳐 다시 금수산기념궁전쪽으로 향하였을 때 사방에서 달려온 군중들의 환호성은 더 높이 터져올랐습니다.

감격에 겨워 뜨거운 눈물로 두볼을 적시면서 두손들어 목청껏 만세를 부르며 궤도전차를 따라 달리는 군중들의 모습은 참으로 우리 인민이 령도자와 동지적관계를 맺고 당의 두리에 일심단결되여있음을 보여주는 장엄한 화폭이였습니다.

위대한 대원수님께서는 인민들과 점점 멀어지는것이 아쉬우신듯 자꾸만 뒤를 돌아보시였습니다.

그러시면서 뒤에서 계속 터져오르고있는 인민들의 환호성을 들으시며 갈리신 음성으로 우리 인민은 참 좋은 인민이라고, 저런 인민과 함께 숨쉬며 일하고있다고 생각하니 혁명을 더 잘해야 하겠다는 결심이 든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였습니다.

참으로 새기면 새길수록 감동을 금할수 없는 뜻깊은 말씀이였습니다.

이렇듯 인민들은 자기의 령도자를 끝없이 우러르고 따르며 령도자는 인민을 굳게 믿고 열렬히 사랑하는 혼연일체의 전통이 변함없이 이어지고있어 우리의 사회주의는 끄떡없고 우리 나라는 그 어떤 대적도 쳐물리칠수 있는 가장 위대한 나라로 존엄떨치고있는것입니다.

혈연적관계 – 서로 뗄래야 뗄수 없이 밀접히 련관된것을 이르는 말.

혼연일체 – 한사람처럼 숨쉬고 행동하면서 한덩어리로 굳게 뭉치는것 또는 그런 상태.

제 14 과
금수산기념궁전을 주체의 최고성지로

온 나라 전체 인민이 피눈물속에 잠겨있던 나날에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의 마음은 어떻게 하면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을 영원히 높이 모시고 대대손손 **김일성**대원수님의 숭고한 뜻을 꽃피워나가겠는가 하는 오직 한가지 생각뿐이였습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을 생전의 모습으로 금수산의사당에 영원히 모실것을 결심하시였습니다.

주체83(1994)년 7월 중순 어느날이였습니다.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일군들에게 **김일성**대원수님을 금수산의사당에 영원히 모시려는 자신의 결심을 말씀하시였습니다.

순간 일군들은 **김정일**대원수님께서 지니신 높은 충실성과 숭고한 도덕의리심에 깊이 감동되였습니다.

사실 일군들은 그때까지만 하여도 이제는 **김정일**대원수님께서 금수산의사당에 오시여 우리 혁명과 세계혁명을 보살피시며 집무를 보실것이라고 생각하고있었습니다. 다른 나라들에서도 당과 국가의 지도자가 서거하거나 바뀌면 그가 집무를 보던 청사는 후임자에게 넘겨지는것이 관례로 되여있었습니다.

하지만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실수 없으시였습니다.

금수산의사당은 한평생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치시는 **김일성**대원수님께 훌륭한 집무실을 마련해드리고싶어하는 우리 인민들의 간절한 소원을 담아 **김정일**대원수님께서 몸소 마련하시여 **김일성**대원수님께 선물로 드리신 집이였습니다.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이 집에서 생의 마지막시기까지 20여년간 계시면서 조선혁명을 령도하여오시였고 수많은 외국의 벗들을 만나시여 귀중한 가르치심도 주시였습니다.

이처럼 **김일성**대원수님의 혁명활동자욱이 깃들어있고 우리 인민과 세계진보적인민들의 마음이 **김일성**대원수님과 하나로 련결되여있는 력사적인 장소를 기념궁전으로 꾸려 대원수님께서 영생하게 하시려는것이 **김정일**대원수님의 의도이고 결심이였던것입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이런 확고한 결심을 안으시고 금수산기념궁전을 주체의 최고성지로 꾸리는 사업을 몸소 이끌어주시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것이 **김일성**대원수님을 생전의 모습으로 모실 방을 어디에 정하는가 하는것이였습니다.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금수산의사당내부를 다 돌아보시였습니다.

그러시고 **김일성**대원수님께서 집무를 보시다가도 손님들이 찾아오면 만나주시고 기념사진을 찍어주군 하시던 금강산홀에 그 위치를 정해주시였습니다.

천만구슬을 뿌리는듯 한 폭포가 쏟아져내리고 단풍으로 아름답게 장식된 금강산을 형상한 벽화가 펼쳐져있는 금강산홀은 의사당에서 가장 높은 곳에 자리잡고있었습니다.

김정일대원수님께서 **김일성**대원수님을 생전의 모습대로 모실 방을 높은 곳에 꾸리도록 하심으로써 여기를 찾는 사람들이 가장 경건한 마음으로 아래서부터 올라와 인사를 드릴수 있게 되였습니다.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금수산기념궁전에 모실 **김일성**대원수님의 립상을 잘 형상하도록 하시였습니다.

그해 8월 어느날 금수산의사당에 나오신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김일성**대원수님의 립상을 모실 자리를 정해주시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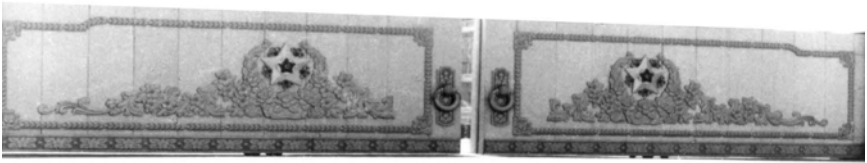
그후 **김일성**대원수님의 립상은 우리 인민들에게 널리 알려진 모습 그대로 새벽노을을 배경으로 제낀깃 양복을 입으시고 숭엄히 서계시는 모습으로 형상해야 한다고 구체적인 가르치심을 주시였습니다.

김일성대원수님께서 생전의 모습으로 계시는 방으로 오르는 계단도 찾아오는 사람들을 두팔벌려 사랑의 한품에 안아주시는것처럼 형상하도록 하시였습니다.

김정일대원수님의 열화같은 충실성과 세심한 지도에 의하여 금수산기념궁전은 훌륭히 꾸려지게 되였습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그후에도 금수산기념궁전이 자기의 면모를 완전히 갖추도록 하기 위하여 모든것을 다하시였습니다.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김일성**대원수님을 높이 모시고 국가의 중대한 정치행사들을 진행할수 있도록 궁전광장과 주석단도 웅장하게 꾸리도록 하시였으며 우리 식의 독특한 돌울타리와 돌대문도 훌륭히 건설하도록 하시였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찾는 사람들이 눈비를 맞지 않도록 궁전외랑도

금수산태양궁전 돌대문과 돌울타리

꾸려주시고 금수산기념궁전 주변일대를 록음이 우거지고 백화가 만발한 수목원으로 아름답게 꾸리도록 하시였습니다.

이처럼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의 끝없는 충실성과 세심한 지도에 의하여 금수산기념궁전은 주체의 최고성지로 훌륭히 일떠설수 있었으며 오늘은 경애하는 **김정은**선생님의 숭고한 도덕의리에 의하여 금수산태양궁전으로 영원히 그 존엄을 떨치고 있습니다.

최고성지 — 가장 거룩하고 성스러운 곳.

궁전외랑 — 궁전의 바깥쪽에 달린 복도.

제 15 과
사회주의사상을 지키시여

오늘 우리 나라는 사상의 강국으로 온 세상에 빛을 뿌리고있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께서 정력적인 사상리론활동을 벌리시여 시대와 인류가 나아갈 앞길을 환히 밝혀주시였기때문입니다.

1990년대초에 조성된 복잡한 국내외정세는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의 궤변을 짓부시고 사회주의를 지켜낼수 있는 위력한 사상적무기를 마련해줄것을 요구하고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같이 잘사는 사회주의를 건설하려는것은 인민대중의 한결같은 지향이고 념원이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먼 옛날부터 착취와 압박이 없고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게 사는 리상사회를 그려왔으며 많은 나라들에서 오랜 기간의 투쟁을 벌려 사회주의사회를 건설하였습니다.

그런데 1990년대초에 이르러 일부 나라들에서 애써 세워놓았던 사회주의가 무너지고 착취계급이 판을 치는 자본주의가 다시 되살아나는 비극적인 사태가 벌어지게 되였습니다.

이렇게 되자 제국주의자들과 혁명의 배신자들은 때를 만난듯이 사회주의를 비방중상하면서 사회주의리념자체가 잘못된것이라고 온갖 궤변을 늘어놓았습니다.

그리하여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갈피를 잡지 못하고있었으며 사회주의를 지향하던 세계혁명가들과 진보적인민들도 사회주의에 대한 신심을 잃고 그 운명을 걱정하고있었습니다.

이런 조건에서 사회주의위업이 정당하며 반드시 승리한다는것을 명백히 밝히는것은 사회주의의 운명과 관련되는 매우 중대한 문제였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우리 인민의 운명, 사회주의의 운명과 그 전망을 두고 많은것을 생각하시였습니다.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을 잃고 금수산기념궁전으로 끝없이 찾아오는 조객들을 맞고 보내시던 못잊을 7월의 그 나날에도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어떻게 하면 **김일성**대원수님의 혁명사상과 업적을 고수하고 빛나게 계승해나가겠는가 하는 생각으로 끊임없는 사색을 이어나가시였습니다.

그러던 주체83(1994)년 10월 16일이였습니다.

이날은 **김일성**대원수님 서거 100일 중앙추모회가 있은 날이였습니다.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일군들에게 세계혁명적인민들에게 정치와 사상, 도덕을 비롯한 모든 분야에서 훌륭한 모범을 보여주는것과 함께 글도 많이 써내야 한다고 말씀하시였습니다.

그러시면서 자신께서는 지금 **《사회주의는 과학이다》**라는 제목으로 글을 쓰고있는데 올해 11월에 내보내려고 한다고 말씀하시였

습니다.

일군들은 정말 놀라지 않을수 없었습니다.

김일성대원수님께서 서거하신 후 누구보다 크나큰 상실의 아픔을 안고계신 우리 장군님께서 당과 국가의 전반사업을 돌보시느라 그처럼 바쁘신 나날을 보내시면서도 중요한 글까지 저술하고계신다니 보통상식으로서는 도저히 생각할수 없는 일이였기때문입니다.

일군들은 **김정일**대원수님의 크나큰 심혈과 로고에 머리가 숙어져 아무 말씀도 드리지 못하였습니다.

그후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사회주의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력사의 진리를 인류에게 안겨주시기 위하여 사색에 사색을 거듭하면서 한구절 한구절 로작을 완성하시였습니다.

그로부터 얼마후인 11월 1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불후의 고전적로작 **《사회주의는 과학이다》**를 세상에 발표하시였습니다.

위대한 대원수님께서는 로작에서 사회주의가 기회주의에 의하여 일시 가슴아픈 곡절을 겪고있지만 그 과학성과 진리성으로 하여 반드시 재생되고 승리하게 될것이라고 뚜렷이 밝혀주시였습니다.

위대한 대원수님께서는 사람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주의가 가장 참다운 사회주의로 된다는것을 밝히시고 주체사상을 구현한 인민대중중심의 우리의 사회주의가 가장 과학적이며 생활력있는 사회주의라고 지적하시였습니다.

그러시면서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는 인민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기때문에 세상에서 가장 우월한 사회주의로 된다고 밝혀주시였습니다.

위대한 대원수님의 고전적로작 **《사회주의는 과학이다》**가 세상에 발표되자 세계는 물끓듯 하였습니다.

사회주의에 대한 신심을 잃고 모대기던 세계정치가들과 진보적인민들은 새로운 투쟁의 기치를 마련해주신 위대한 대원수님께 다

함없는 감사를 드리였고 대원수님을 21세기의 위대한 태양으로 높이 칭송하였습니다.

한편 사회주의가 이제는 끝장이 났다고 떠들던 원쑤들은 기가 꺾이여 머리를 들지 못하였습니다.

참으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은 그처럼 복잡한 세계정세속에서 사회주의사상을 지키고 빛내여나갈수 있는 위력한 무기를 마련해주신 위대한 사상리론가, 탁월한 정치가이시였습니다.

저술하다 — 책이나 작품, 론문 같은것을 쓰는것을 높여 부르는 말.

궤변 — 거짓을 정당화하거나 반동적본질을 가리우기 위하여 옳은것과 그릇된것을 뒤바꾸어서 그럴듯하게 둘러맞춘것.

제 16 과
다박솔초소

다박솔초소가 우리 군대와 인민들에게 뜻깊은 사연을 전해주며 오늘과 같이 세상에 널리 알려지게 된것은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께서 다박솔초소를 현지지도하신 때로부터 우리 당의 선군정치가 보다 높은 단계에서 전면적으로 실현되였기때문입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다박솔초소에서 강대한 인민군대가 있는 한 주체혁명위업은 끝까지 완성될수 있다는것을 굳게 확신하시였습니다.

온 나라가 피눈물의 한해를 보내고 맞이한 주체84(1995)년 1월 1일이였습니다.

우리 인민들에게 뜻깊은 새해서한을 보내주신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어느 한 인민군고사포중대를 찾아 현지지도의 길에 오르시였습니다.

새해 첫 아침에 뜻밖에도 **김정일**대원수님을 자기들의 초소에

모시게 된 중대군인들의 감격과 기쁨은 그 무엇이라 표현할수 없이 컸습니다.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푸르싱싱한 다박솔로 뒤덮여있는 중대의 주변을 둘러보시다가 동행한 일군들에게 다박솔중대요, 이런 곳을 다박솔중대라고 한다고 하시며 중대군인들이 화력진지를 잘 꾸린데 대하여 치하해주시였습니다.

이어 중대군인들의 화력복무훈련이 시작되였습니다.

지휘관의 구령에 따라 순간의 지체도 없이 자기 번수동작을 수행하는 1포 포수들의 모습은 참으로 민첩하고 정확하였습니다.

1포성원들의 훈련에 이어 중대전체가 하는 훈련이 시작되였습니다.

중대군인들은 멸적의 투지와 용맹을 안고 전투동작들을 불이 번쩍나게 수행해나갔습니다.

위대한 대원수님께서는 훈련이 끝나자 친히 박수를 보내주시며 훈련을 싸움맛이 나게 잘한다고, 구분대가 전투적기백이 있다고 높이 평가하시였습니다.

그러시면서 우리 당에 무한히 충직한 강대한 인민군대가 있는 한 조국통일을 이룩하며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할수 있다는것은 확정적이라고 확신에 넘쳐 말씀하시였습니다.

순간 중대군인들의 가슴은 뜨거운 격정으로 끓어번졌습니다. 찬바람부는 고지에서 자기들의 훈련모습을 보아주신것만도 분에 넘친데 인민군대를 혁명의 기둥으로 굳게 믿으시고 크나큰 신임과 기대를 안겨주시였으니 총쥔 병사된 영예와 긍지는 끝이 없었습니다.

중대군인들은 위대한 대원수님을 우러르며 기어이 혁명의 총대로 조국통일을 이룩하며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하고야말 결의를 다지고 또 다지였습니다.

화력진지에서 내리신 위대한 대원수님께서는 이어 교양실과 병실들을 일일이 돌아보시면서 병사들의 군무생활의 구석구석까지 보

살펴주시였습니다.

교양실에 들리신 위대한 대원수님께서는 직관사업에 필요한 종이와 색감도 넉넉히 보장해주도록 하시고 군인들속에서 《**김일성**저작집》과 덕성실기 등을 많이 읽도록 하는것은 아주 좋은 일이라고 치하해주시였습니다.

어느덧 시간이 퍼그나 흘렀습니다.

하지만 위대한 대원수님께서는 오늘은 중대를 다 돌아보자고 하시면서 중대병실로 걸음을 옮기시였습니다.

위대한 대원수님께서는 군인들의 잠자리도 살펴주시고 포를 다루는 군인들이기때문에 비누와 세수수건도 더 공급해주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친부모도 미치지 못할 뜨거운 사랑을 돌려주시였습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인민군대를 주력으로 하여 혁명을 끝까지 완성하실 확고한 의지를 선언하시였습니다.

현지지도를 마치고 돌아오신 날 저녁이였습니다.

위대한 대원수님께서는 인민군지휘성원들을 몸가까이 불러주시였습니다.

새해를 맞는 뜻깊은 날에 위대한 대원수님을 한자리에 모시게 된 인민군지휘관들의 심정은 남달랐습니다.

위대한 대원수님께서는 기본전투단위인 구분대에 내려가 함께 설을 쇠면서 군인들을 축하하여주고 돌아오니 더없이 마음이 가볍고 기쁘다고 하시였습니다.

그러시면서 나는 앞으로도 전사들과 같이 흙냄새도 맡고 포연이 자욱한 전투초소들에서 전사들과 함께 생사고락을 같이하는 최고사령관이 될것이라고 뜨겁게 말씀하시였습니다.

위대한 대원수님의 말씀을 듣는 일군들의 눈굽은 뜨겁게 젖어들었습니다.

그러는 일군들을 정겹게 둘러보신 위대한 대원수님께서는 나는

군대를 가지고 혁명을 끝까지 밀고나가려고 한다고 힘주어 강조하시였습니다.

위대한 대원수님의 드팀없는 신념과 의지가 그대로 맥박치는 말씀이였습니다.

그때로 말하면 미제를 우두머리로 하는 제국주의련합세력이 우리 나라를 눈에 든 가시처럼 여기면서 가장 우월한 우리 식 사회주의를 허물어보려고 악랄하게 책동하고있던 때였습니다.

날을 따라 우심해지는 적들의 무모한 전쟁도발책동은 우리 나라에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를 일촉즉발의 정세를 조성하였고 우리의 경제를 질식시키려는 제국주의자들의 극악한 경제제재와 봉쇄책동은 심각한 경제적난국을 몰아왔습니다. 여기에 몇해째 계속된 자연재해로 인한 식량난까지 겹쳐 우리 조국과 인민은 사회주의수호를 위한 고난의 행군을 하지 않으면 안되였습니다.

이 준엄한 시기 위대한 대원수님께서는 내 나라, 내 조국을 총대로 고수하고 빛내여나가시려는 확고한 신념과 의지를 지니시고 대국상후 처음으로 맞는 양력설날에 다박솔초소를 찾으시였던것입니다.

참으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의 다박솔초소에 대한 력사적인 현지지도는 고난의 행군시기 나라에 조성된 엄혹한 정세에 대처하여 선군정치를 전면적으로 실현해나가실 자신의 신념과 의지를 내외에 선포한 력사적인 현지시찰이였습니다.

선군정치 – 군사를 제일국사로 내세우고 인민군대의 혁명적기질과 전투력에 의거하여 조국과 혁명, 사회주의를 보위하고 전반적사회주의건설을 힘있게 다그쳐나가는 사회주의정치방식.

제 17 과
혁명적군인정신

혁명적군인정신은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께서 인민군대를 혁명의 기둥, 주력군으로 내세우시고 사회주의건설의 돌파구를 열어나가도록 이끌어주시던 나날에 창조된 위대한 혁명정신입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나라의 전력문제를 푸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안변청년발전소건설을 인민군군인들에게 맡겨주시였습니다.

안변청년발전소건설공사는 대단히 규모가 크고 어려운 공사였습니다. 공사규모만 보더라도 서해갑문건설의 2배나 되고 수많은 건설자재와 자금, 설비들이 요구되였습니다.

이런 방대한 발전소건설공사를 놓고 적들은 《종이장우의 발전소》라고 비방중상하였고 우리 나라와 가까운 벗들도 머리를 기웃거리며 걱정하였습니다.

또 일부 과학자들속에서는 공사에서 제기되는 기술적문제들을 어떻게 풀것인가 하고 신심이 없어하였습니다.

이러한 때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어떤 어려운 조건에서도 언제나 당의 결정을 결사관철하여온 인민군군인들을 굳게 믿으시고 그처럼 방대하고 어려운 발전소건설을 인민군대에 맡겨주시였습니다.

여기에는 인민군대의 혁명정신과 투쟁기풍으로 고난의 행군의 돌파구를 열고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일대 전환을 안아오시려는 **김정일**대원수님의 깊은 의도와 기대가 담겨져있었습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의 크나큰 믿음을 받아안은 군인건설자들은 불굴의 희생성과 대중적영웅주의를 발휘하여 공사를 힘있게 밀고나갔습니다.

안변청년발전소건설에 참가한 군인건설자들은 《당이 결심하면 우리는 한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명령을 관철하기 전에는

조국의 푸른 하늘을 보지 말자!》고 하면서 물길굴공사를 시작한 첫날부터 막장에서 낮과 밤이 따로 없는 치렬한 전투를 벌리였습니다.

이들속에는 두팔과 다리를 부상당하여 아무 일도 할수 없게 되자 노래를 불러 군인들을 고무한 지휘관도 있었고 도화선에 불을 달면 불과 2분내로 폭발이 일어나리라는것을 알면서도 주저없이 한몸이 그대로 자폭도화선이 되여 발파를 보장한 병사도 있었습니다.

어느 한 구분대의 굴진막장에서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갑자기 갱의 수십m구간이 무너지면서 거기에서 작업하던 20여명의 군인들이 갇히게 되였습니다.

그들은 이틀동안이나 굴속에 갇히여있으면서도 조금도 실망하지 않고 계속 전투를 벌렸습니다. 갱밖에서 압축공기관으로 밥덩이를 들여보낼 때에도 그들은 밥대신 압축공기를 보내달라고 웨치면서 최후결사전을 벌려나갔습니다.

군인건설자들의 이런 투철한 결사관철의 정신,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투쟁정신에 의하여 드디여 발전소1계단공사가 완공되였습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안변청년발전소군인건설자들이 발휘한 혁명정신과 위훈을 높이 평가해주시였습니다.

주체85(1996)년 6월 어느날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거창한 대자연개조사업으로 끓어번지고있는 안변청년발전소건설장을 찾아주시였습니다.

이곳 일군들로부터 공사진행정형을 보고받으신 위대한 대원수님께서는 이윽고 언제며 지상구조물을 돌아보시고 물길굴로 향하시였습니다.

굴안은 아직 제대로 정리되지 못한데다가 물까지 차있어 매우 위험하였습니다.

인민군지휘관들이 위대한 대원수님의 앞을 막아나서며 물길굴안으로 들어가실수 없다고 간절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위대한 대원수님께서는 언제나와 같이 만면에 환한 미

소를 지으시고 우리 전사들이 희생성을 발휘하여 건설한 물길굴인데 주저말고 들어가보자고 말씀하시였습니다.

위대한 대원수님께서는 차바퀴가 물에 다 잠기는 깊은 곳에까지 차를 몰고 들어가도록 하시고 전조등으로 물길굴을 하나하나 비쳐보시며 거기에 스며있는 미더운 군인건설자들의 영웅적위훈을 헤아려보시였습니다.

위대한 대원수님께서는 물길굴을 품을 들여 건설한것이 한눈에 알린다고, 군인들이 정말 수고를 많이 했다고 거듭 치하해주시였습니다.

물길굴을 다 돌아보시고 밖으로 나오신 위대한 대원수님께서는 오늘 안변청년발전소를 돌아보면서 당과 수령에게 무한히 충실하며 당의 두리에 일심단결된 우리 군대와 인민대중의 힘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현실로 목격하였다고 말씀하시였습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군인들이 발휘한 혁명적군인정신을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적극 따라배우도록 하시였습니다.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안변청년발전소 군인건설자들이 발휘한 고귀한 사상정신을 혁명적군인정신으로 부르도록 하시였습니다.

혁명적군인정신의 기본내용

- 수령결사옹위정신
- 결사관철의 정신
- 영웅적희생정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습니다.

《인민군대의 혁명적군인정신은 위대한 선군시대를 상징하고 대표하는 숭고한 혁명정신이며 혁명과 건설에서 기적을 창조하고 위훈을 떨치게 하는 가장 혁명적이고 전투적인 사상정신적무기로 되고있습니다.》

주체86(1997)년 6월 어느날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조선인민군지휘성원들을 만나주신 자리에서 온 사회가 혁명적군인정신을 따라

배우는 여기에 오늘의 난국을 타개하고 주체혁명위업을 빛나게 완성하기 위한 기본방도의 하나가 있다고 다시금 일깨워주시였습니다.

위대한 대원수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온 나라 전체 인민들속에서는 혁명적군인정신을 따라배우기 위한 투쟁이 힘있게 벌어졌습니다.

이 과정에 강계정신이 창조되고 성강의 봉화를 비롯한 위대한 혁신의 봉화들이 타오르게 되였으며 강성대국건설의 돌파구가 열리게 되였습니다.

참으로 혁명적군인정신은 고난의 행군, 강행군을 승리적으로 이겨내고 내 나라, 내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창조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떠밀어준 위대한 추동력이였습니다.

대자연개조 — 큰 규모에서 토지, 하천, 산림 등 자연조건과 자연부원을 사람들의 생활에 유리하게 전변시키는 사업.

제 18 과
길영조영웅의 삶을 빛내여주시며

조선혁명이 시련을 겪고있던 1990년대에 우리 나라에서는 당과 수령을 결사옹위하는 길에서 한목숨을 기꺼이 바친 영웅전사들이 수많이 나왔습니다.

그 대오속에는 수령결사옹위투사로 영생하는 길영조영웅도 있습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혁명의 수뇌부를 결사옹위하고 최후를 마친 길영조영웅에게 빛나는 영생의 삶을 안겨주시였습니다.

한해도 다 저물어가던 주체81(1992)년 12월 어느날이였습니다.

이날도 훈련을 성과적으로 마치고 돌아오던 길영조영웅의 비행

기에서 뜻하지 않은 불길이 일어났습니다.

정황은 매우 위급하였습니다. 그러나 길영조영웅은 자기 한몸의 위험을 피해 탈출할수가 없었습니다.

처음 비행기가 떨어지려던 지점은 고층살림집들이 늘어선 주택구역인데 그 한가운데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의 동상이 모셔져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기수를 돌렸는데 이번에는 그 어떤 경우에도 떨어져서는 안될 비행금지구역이였습니다.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께서 그 지구를 현지지도하고계시였던것입니다.

그는 초인간적힘을 다하여 다시한번 바다가로 기수를 돌려 불타는 비행기와 함께 서슴없이 자폭의 길을 택하였습니다.

이렇게 길영조영웅은 한목숨바쳐 혁명의 수뇌부를 보위하였습니다.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수령결사옹위의 길에서 참된 혁명전사의 숭고한 모범을 보여준 그에게 공화국영웅칭호를 수여하도록 하시여 죽어서도 영생하는 삶을 안겨주시였습니다.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길영조영웅이 복무하던 비행대대를 길영조비행대대로, 그가 다니던 학교를 길영조중화제1고등중학교(당시)로 부르도록 하시고 학교에 영웅의 반신상을 세우도록 하는 은정깊은 조치를 거듭 취해주시였습니다.

그후에도 길영조영웅을 잊지 못해하시며 그의 가정에 대를 두고 길이 전할 사랑을 돌려주시였습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길영조영웅이 발휘한 영웅적위훈을 모든 군인들이 따라배우도록 이끌어주시였습니다.

주체85(1996)년 2월 어느날이였습니다.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머나먼 전선시찰의 길에서 쌓이신 피로도 푸실사이 없이 또다시 어느 한 비행부대를 찾아주시였습니다.

꿈결에도 뵙고싶던 위대한 대원수님을 부대에 모시게 된 비행사들은 너무도 기쁘고 감격스러워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열광적으로 환호하였습니다.

비행사들과 감격적인 상봉을 하신 위대한 대원수님께서는 지

상비행련습실들을 돌아보시고 그길로 길영조비행대대를 찾으시였습니다.

강당에는 길영조영웅이 비행기술을 부단히 련마하던 훈련기재들과 전술방안을 익히던 비행연구수첩 그리고 평시에 쓰던 여러권의 정치학습장들이 진렬되여있었습니다.

위대한 대원수님께서는 펼쳐놓은 학습장들을 하나하나 주의깊게 살펴보시며 우리 당의 혁명사상으로 무장하고 충실성을 키우기 위해 기울인 길영조영웅의 피타는 노력을 헤아려보시였습니다.

10권에 달하는 책들을 다 보아주신 위대한 대원수님께서는 일군들에게 길영조동무는 충성심을 키우기 위해 평소에 그토록 꾸준히 노력하였기때문에 생사를 판가리하는 위급한 순간에 영웅적으로 행동할수 있었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였습니다.

그러시면서 길영조동무하나만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고, 모든 비행사들이 다 길영조가 되여야 한다고, 그래야 우리 당이 강하고 우리 조국이 굳건하다고 말씀하시였습니다.

이날 위대한 대원수님께서는 길영조영웅이 지은 자작시 《가장 빛나는 별이 되리》도 보아주시면서 길영조와 같은 수많은 충신들이 있기때문에 마음이 든든하다고, 모든 인민군군인들이 길영조영웅의 모범을 따라배워야 한다고 다시금 강조하시였습니다.

어느덧 위대한 대원수님께서 떠나실 때가 되였습니다.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최고사령관동지를 결사옹위하는 하늘의 7련대가 되겠다고 보고를 올리는 지휘관의 두손을 뜨겁게 잡아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시였습니다.

《모든 비행사들을 길영조영웅처럼 준비시켜야 하겠습니다.》

이렇듯 위대한 대원수님께서는 길영조비행사를 수령결사옹위의 영웅으로 내세워주시고도 모든 군인들이 그를 본받도록 하기 위하여 깊이 마음을 쓰시였습니다.

위대한 대원수님께서는 그후에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길영조영

웅을 뜨겁게 추억하시면서 전군이 순결한 수령결사옹위대오로 준비되도록 이끌어주시였습니다.

그해 4월에도 길영조동무는 우리 당의 충실하고 훌륭한 비행사라고 하시면서 모든 군인들이 길영조동무가 당과 수령을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초개와 같이 바친 정신도덕을 따라배우도록 하여야 하겠다고 말씀하시였습니다.

그러시면서 길영조영웅이 발휘한 견결성, 희생성, 영웅성은 모든 군인들과 일군들이 따라배워야 할 정신도덕의 귀감이라고 뜨겁게 말씀하시였습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의 정력적인 지도밑에 인민군대에서는 길영조영웅의 충실성을 따라배우기 위한 사업이 힘있게 벌어졌습니다.

이 과정에 전군이 수령결사옹위의 대오로 튼튼히 준비되고 수많은 총폭탄영웅들이 자라나게 되였습니다.

제 19 과
철령에 새기신 불멸의 자욱

철령은 우리 나라의 동부산지에 위치하고있는 령들중의 하나입니다. 산세가 매우 험하여 사람들의 발길이 얼마 미치지 못하던 철령이 오늘은 위대한 백두령장의 선군령도업적과 함께 많은 사연을 전해주며 선군혁명의 증견자로 거연히 솟아 빛나고있습니다.

언제인가 일군들이 쪽잠과 줴기밥으로 선군장정의 길을 이어가시는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께 이제는 부디 사납고 험한 철령만은 더 넘지 말아달라고 간절히 말씀드린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자신께서 험준한 철령을 왜 자꾸 넘으시는지 그 깊은 의도를 밝혀주시였습니다.

위대한 대원수님께서는 나도 그 령이 사납고 험한 령이라는것을 잘 안다, 령을 톺아오르다가 아차 실수하면 천길낭떠러지에 굴러떨어진다는것도 모르는바가 아니다, 그런데도 자꾸 철령을 넘나드는것은 철령너머에 사랑하는 나의 전사들이 최고사령관을 기다리며 조국의 방선을 지키고있기때문이다, 그들이 언땅에 배를 대고 적진을 지켜보며 밤을 지샐 때 무엇을 생각하는지 아는가, 그들은 이 최고사령관을 생각하며 온몸이 얼어드는것도, 온몸이 물크러지는듯 한 무더위도 참아내며 전연초소를 철벽으로 지키고있다, 그러니 내가 어찌 그들을 자주 찾아가지 않고 가만히 앉아있을수 있겠는가고 절절히 말씀하시였습니다.

사랑하는 전사들이 있는 곳이라면 그 길이 아무리 멀고 험해도 기어이 가시려는것이 위대한 대원수님의 드팀없는 신념이며 총대를 앞세워 혁명의 준엄한 난국을 이겨내고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구원하시려는것이 대원수님의 철석같은 의지였습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온갖 위험을 무릅쓰시고 멀고 험한 철령을 여러차례 넘나드시며 인민군대를 무적필승의 혁명강군으로 키우시였습니다.

주체85(1996)년 2월 어느날이였습니다.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일군들에게 전선동부의 351고지로 가자고 말씀하시였습니다.

순간 일군들은 매우 놀랐습니다.

그것은 굽이굽이 넘어야 할 철령의 가파로운 벼랑길들이 모두 눈으로 얼어붙어 차가 달리기에는 매우 위험하였기때문입니다.

게다가 351고지는 적들의 도발책동이 그칠새없이 계속되군 하는 최전연이였습니다.

그래서 일군들은 위대한 대원수님께 그쪽으로는 길이 험하고 위험하기때문에 가셔서는 안된다고 간절히 말씀올렸습니다.

그러자 위대한 대원수님께서는 차길이 막히면 걸어서라도 기어이

가야 한다고 하시면서 앞장에서 전선시찰의 길에 오르시였습니다.

이렇게 험한 철령을 넘어 351고지 초소에 도착하신 위대한 대원수님께서는 맵짠 칼바람이 세차게 불어오는 고지정점에 오르시였습니다.

그곳으로부터 적초소까지 거리는 불과 1 200m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동행한 일군들이 적들이 351고지를 노리고있기때문에 매우 위험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자 위대한 대원수님께서는 웃음을 지으시며 일당백초병들이 초소를 튼튼히 지키고있기때문에 무서울것이 없다고 말씀하시였습니다.

초소를 돌아보신 위대한 대원수님께서는 351고지를 철벽의 요새로 강화한데 대하여 높이 치하해주시면서 앞으로 전투준비를 더 강화할데 대하여 가르쳐주시였습니다.

이날 위대한 대원수님께서는 감시초소를 지켜선 두 병사를 친히 만나주시였습니다. 위대한 대원수님께서는 그들이 입고있는 솜동복을 손수 만져보시며 솜동복이 얇아 군인들이 추워할수 있다고 걱정하시였습니다.

사실 그 솜동복으로 말하면 초소군인들이 누구보다 찬바람을 많이 맞는다고 하여 비교적 솜을 두텁게 넣고 만든 겨울군복이였습니다.

그래서인지 초소군인들은 추운줄을 모르고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위대한 대원수님께서는 여전히 안색을 흐리신채 두 감시병을 바라보시며 누빈 솜동복은 누빈 자리로 바람이 스며들것이라고 걱정하시면서 겉을 누비지 않은 솜동복은 바람스며드는것이 좀 나을것이라고 하시였습니다.

그러시면서 천이 좀더 들더라도 군인들이 춥지 않게 하여야 한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였습니다.

이어 병사가 신고있는 신발 앞코숭이도 눌러보시고 신발목도 만져보시던 위대한 대원수님께서는 군인들의 발이 시리지 않게 솜신발에 솜을 두툼히 넣도록 하여야 한다고 가르쳐주시였습니다.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지휘관들을 둘러보시며 《**군관들을 위하여 전사들이 있는것이 아니라 전사들을 위하여 군관들이 있습니다.**》라고 말씀하시였습니다.

위대한 대원수님의 이 뜻깊은 말씀은 지휘관들에게 커다란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초소의 지휘관들과 병사들은 눈바람 사나운 날씨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멀고 험한 철령을 넘어 최전연초소까지 찾아오시여 한없이 뜨거운 사랑과 은정을 베풀어주시는 위대한 대원수님을 우러르며 조국의 전연초소를 더욱 철벽으로 지켜갈 결의를 굳게 다지였습니다.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온 나라 인민들이 **김일성**대원수님을 사무치게 그리며 맞이한 주체86(1997)년 뜻깊은 태양절에도 또다시 철령을 넘으시여 1211고지를 찾으시였습니다.

이날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여러 시간동안 1211고지의 험한 길을 걸으시면서 조국해방전쟁시기 싸움의 흔적이 깃든 격전장들을 하나하나 돌아보시였습니다.

그러시면서 1211고지방위자들의 영웅적위훈이 깃든 옛 싸움터들을 무심히 보지 말아야 한다고 힘주어 강조하시였습니다.

위대한 대원수님께서는 이렇게 군인들의 가슴마다에 억척같은 신념과 불굴의 의지를 깊이 새겨주시고나서 부대의 전투력강화에서 나서는 구체적인 과업과 방도들도 밝혀주시였습니다.

천출명장이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의 이렇듯 정력적인 선군혁명령도의 거룩한 자욱이 있어 오늘 우리 인민군대는 이 세상 그 어떤 대적도 단매에 물리칠수 있는 무적의 강군으로 자라날수 있었습니다.

제 20 과
《나는 강계정신을 영원히 잊지 않을것입니다》

강계정신은 지난 고난의 행군, 강행군시기에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께서 자강도를 전국의 앞장에 내세워주시고 고난을 뚫고나가도록 이끌어주시던 나날에 창조된 우리 시대의 투쟁정신입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고난의 행군의 가장 어려운 시기에 자강도를 본보기로 내세울것을 결심하시였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을 잃고 우리 인민은 지금껏 있어본적이 없는 가장 어려운 시련을 겪지 않으면 안되게 되였습니다.

제국주의자들은 우리 나라를 질식시키려고 이리떼처럼 달려들었고 심한 경제적난관과 자연재해로 하여 나라의 경제형편과 식량사정은 말이 아니였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어려움을 겪게 되자 대오안에서 동요분자, 변절자들이 나오기 시작하였고 적들은 우리의 사회주의가 오래가지 못하고 인차 허물어지고말것이라고 좋아하였습니다.

이처럼 어려운 시련의 시기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자강땅을 본보기로 하여 온 나라를 일떠세울것을 결심하시였습니다.

자강땅은 만경대일가분들과 백두산3대위인의 발자취가 스며있는 뜻깊은 력사의 고장입니다.

이곳에는 공장, 기업소들이 많고 지난 기간 우리 당을 충직하게 받들어온 로동계급의 대부대가 있습니다.

자강도는 농사를 지을만 한 번듯한 포전도 별로 없었으며 교통조건도 불비하였습니다.

그러나 자강도인민들은 강의한 의지로 어려움을 꿋꿋이 이겨내면서 사회주의붉은기를 굳건히 지켜가고있었습니다.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바로 이런 점을 헤아리시고 가장 어려움을 겪고있는 자강도를 추켜세우게 되면 그것을 본보기로 온 나라를

일떠세울수 있다는것을 굳게 확신하시였습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자강도를 전국의 앞장에 내세우시고 강계정신이 창조되도록 몸소 진두에서 이끌어주시였습니다.

주체85(1996)년 10월 어느날이였습니다.

자강도의 한 책임일군을 몸소 집무실로 부르신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자강도에서 먼저 중소형발전소들을 많이 건설하고 관리운영을 잘하여 전국의 앞장에 선 단위가 될데 대한 가르치심을 주시였습니다.

김정일대원수님께서 자기들을 고난의 행군의 앞장에 내세워주셨다는 격동적인 소식에 접한 자강도사람들은 그 크나큰 믿음과 기대에 보답할 불타는 일념을 안고 한사람같이 떨쳐나섰습니다.

그들은 온갖 애로와 난관을 꿋꿋이 이겨내면서 자체의 힘으로 불과 1년사이에 수십개의 중소형발전소들을 건설하였습니다.

주체87(1998)년 1월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대소한의 강추위속을 뚫고 몸소 자강땅을 찾아주시였습니다.

위대한 대원수님께서는 이틀동안에 강계시와 장강군을 비롯한 소재지들과 새로 건설한 여러 중소형발전소들 그리고 도안의 중요공장, 기업소 등 무려 20여개 단위나 돌아보시였습니다.

위대한 대원수님께서 이어가신 현지지도의 길은 첫걸음부터 북방의 엄혹한 추위와 세찬 눈보라를 헤쳐야 했고 분과 초로 나누어 맞물려진 그야말로 간고하고 긴장한 강행군이였습니다.

날씨가 사납고 길이 험했지만 위대한 대원수님께서는 조금도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현지지도의 길을 끊임없이 이어가시였습니다.

참으로 고난의 행군의 앞장에는 언제나 위대한 대원수님께서 서계시였습니다.

어느날 위대한 대원수님께서 강계시내의 어느 한 소형발전소를 돌아보시고 장강군으로 가실 때였습니다.

위대한 대원수님을 모신 승용차가 어느 한 외통길에 들어섰는

데 그 길로는 발구에 두엄을 듬뿍듬뿍 담아싣고 눈덮인 도로를 달리는 사람들, 거름을 실은 손달구지를 끌고 남새포전으로 가는 사람들로 하여 도로는 메다싶이 붐비였습니다.

이러다나니 위대한 대원수님을 모신 승용차도 속도를 높이지 못하고있었습니다.

한초가 새로우신 위대한 대원수님의 현지지도길이 지체되는것만 같아 운전사는 몹시 안타까왔습니다.

그러는 그를 바라보시며 위대한 대원수님께서는 인민들과 나란히 강행군을 하는것이 좋다고 하시면서 얼마나 좋은 인민인가고, 생각같아서는 차에서 내려 인민들과 함께 걷고싶지만 그렇게 할 형편이 못되고 시간적여유가 없는것이 유감이라고, 저런 인민들과는 하늘땅끝까지라도 함께 갈수 있다고 절절히 말씀하시였습니다.

> **강계정신의 특징**
>
> - 령도자에 대한 절대적인 숭배심에 기초한 결사관철의 정신
> -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
> - 불굴의 투쟁정신
> - 혁명적락관주의정신

위대한 대원수님의 이런 크나큰 믿음과 사랑 그리고 불면불휴의 정력적인 령도가 있었기에 자강도사람들은 참기 어려운 고생을 하면서도 《가는 길 험난해도 웃으며 가자!》라는 구호를 들고 이악하게 투쟁하여 위대한 강계정신의 창조자로 될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강계정신은 우리 나라가 가장 어려운 시련을 겪을 때 창조된 사회주의수호정신이며 선군시대에 새로운 천리마대고조의 불길이 타오르게 한 투쟁정신입니다.

언제인가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강계정신이 창조되던 나날을 감회깊이 추억하시면서 일군들에게 **《강계정신은 우리 혁명의 가장 어려웠던 시기에 나에게 힘을 주고 의지가 되였으며 우리 인민이 〈고난의 행군〉, 강행군을 승리적으로 진행할수 있게 하였습니다. 나는 강계정신을 영원히 잊지 않을것입니다.》**라고 말씀하시였습니다.

참으로 자강도의 모범을 일반화하기 위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의 정력적인 령도로 하여 강계정신은 온 나라에 차넘치게 되였으며 이 정신의 위력으로 고난의 행군, 강행군의 준엄한 시련은 성과적으로 극복되여나갔습니다.

제 21 과
성강의 봉화

온 나라에 세차게 타오른 성강의 봉화는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께서 북방의 철의 기지 성진제강련합기업소 로동계급속에 몸소 지펴주신 새로운 혁명적대고조의 봉화였습니다.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경제건설을 추켜세우고 국방력을 강화하는데서 철강재생산이 가지는 중요성을 깊이 통찰하시고 나라의 강철생산에서 중요한 몫을 맡고있는 성진제강련합기업소에 새로운 혁신의 봉화를 지펴주시기 위하여 주체87(1998)년 3월 어느날 기업소를 몸소 찾아주시였습니다.

기업소에 도착하신 위대한 대원수님께서는 고열이 풍기는 강철직장의 전기로앞에서 이글거리는 쇠물을 주의깊게 살펴보기도 하시고 자체로 꾸려놓은 고압관직장도 돌아보시면서 로동자들이 거둔 성과를 치하해주시였습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몸소 협의회를 마련하신 다음 이곳 로동계급이 지닌 변함없는 충실성에 대하여 높이 평가하시였습니다.

일군들과 함께 협의회장소에 들어서시던 위대한 대원수님께서는 웬일이신지 문득 걸음을 멈추시였습니다.

《책걸상들을 왜 이렇게 놓았습니까?》

위대한 대원수님의 물으심에 모두들 영문을 알수 없어 아무 말

씀도 올리지 못하였습니다.

위대한 대원수님께서는 어리둥절해있는 일군들에게 오늘 제강소동무들과 빙 둘러앉아 이야기를 나누고싶었는데 책걸상을 또 이렇게 딱딱하게 놓았다고 가볍게 나무람하시는것이였습니다.

그제서야 영문을 알게 된 일군들은 전후 어려웠던 시기 강선의 로동계급과 무릎을 마주하시고 나라일을 의논하시던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의 모습을 다시금 뵈옵는것만 같았습니다.

격식없이 협의회를 마련하신 위대한 대원수님께서는 일군들로부터 공장의 실태를 구체적으로 료해하시고나서 로동자들은 어떠한가고 물으시였습니다.

공장의 당책임일군은 지금 모든것이 부족한 때여서 대단히 어려운것만은 사실이지만 로동계급의 정신만은 변함이 없다고 하면서 성강사람들은 위대한 장군님만을 믿고 따른다고 확신과 긍지를 담아 말씀드리였습니다.

잠시 아무 말씀도 없으시던 위대한 대원수님께서는 얼마전 자강도에 대한 현지지도를 하시던 때를 회고하시였습니다.

그때 자강도사람들은 어려운 생활속에서도 제기할것이 없는가고 물으면 쌀을 달라고 하는것이 아니라 일감을 달라고 하였다고 하시면서 그들의 호소가 잘 말해주는것처럼 사회주의경제건설장들에서는 강철을 애타게 요구하고있다고 말씀하시였습니다.

계속하시여 오늘 이곳 로동계급의 말을 듣고싶어 와보니 비록 모든것이 부족해서 생산은 정상화하지 못하고있지만 성강로동계급의 당에 대한 충성심은 더 높아졌다는것을 알수 있다고 말씀하시였습니다.

그러시면서 지금 우리에게는 강철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도 로동계급의 이 정신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하시였습니다.

위대한 대원수님께서는 로동계급의 높은 충실성을 평가하시고 이 정신만 있으면 이 세상에 무서울것이 없다고 가르치시였습니다.

협의회참가자들은 그때에야 비로소 위대한 대원수님께서 중시하시는것이 원료나 자재문제가 아니라 우리 로동계급의 사상정신상태라는것을 깨닫게 되였습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성강의 로동계급에게 새로운 혁명적대고조의 봉화를 앞장에서 들고나갈데 대한 믿음을 안겨주시였습니다.

위대한 대원수님께서는 크나큰 격동에 휩싸여있는 일군들에게 당에서는 우리 혁명이 난관과 시련을 겪을 때마다 강철로동계급이 혁명적대고조의 앞장에서 강철로 당을 받들었듯이 성강의 로동계급이 분연히 일떠나 대고조의 돌파구를 열어제낄것을 바라고있다고 절절히 말씀하시였습니다.

그러시면서 **《내 생각에는 성진제강련합기업소 전체 로동계급이 당의 호소에 호응하여 다시한번 천리마를 타고 새로운 혁명적대고조의 봉화를 앞장에서 들고나가는것이 좋을것 같습니다.》**라고 믿음에 찬 말씀을 하시였습니다.

위대한 대원수님의 말씀은 협의회참가자들의 가슴을 세차게 울려주었습니다.

제강소의 일군들은 자기들에게 크나큰 믿음을 안겨주시고 시대의 앞장에 내세워주시는 위대한 대원수님의 기대에 보답할 결의를 굳게 다지였습니다.

어느덧 시간이 흘러 위대한 대원수님께서 떠나실 때가 되였습니다.

위대한 대원수님께서는 기업소일군들에게 오늘의 대고조의 기본열쇠는 성강이 쥐고있다고 하시면서 노래에도 있는것처럼 천리마를 탄 기세로 세기를 주름잡아 계속 질풍같이 달려나가야 한다고 다시금 고무해주시였습니다.

위대한 대원수님의 크나큰 믿음은 성강의 로동계급에게 새로운 힘과 용기를 안겨주었습니다.

성강의 로동계급은 위대한 대원수님께서 지펴주신 대고조의 봉

화를 높이 추켜들고 사회주의최후승리를 위한 총돌격전에 산악같이 떨쳐나섰습니다.

용해공들은 전기로들마다에서 붉은 쇠물을 뽑아내였고 강철생산에 조금이라도 이바지하자고 온 성강땅이 파철모으기에 떨쳐나섰습니다.

참으로 성강에 끓어번진 뜨거운 쇠물은 위대한 장군님을 강철로 받들려는 이곳 로동계급과 인민들의 억센 신념과 의지의 분출이였습니다.

성강의 봉화는 이렇게 타올랐으며 성강의 봉화따라 온 나라가 일떠섰습니다.

새로운 혁명적대고조의 열풍을 안아온 성강의 봉화는 이처럼 언제나 로동계급을 비롯한 인민대중을 굳게 믿으시고 그에 의거하여 혁명의 준엄한 난국을 타개해나가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의 현명한 령도가 낳은 더없이 소중한 선군시대의 봉화였습니다.

제 22 과
사랑의 약크림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습니다.

《김정일동지는 혁명동지들과 인민들을 무한히 아끼고 사랑합니다.》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선군혁명령도의 나날에 동서고금의 그 어느 나라 력사에서도 일찌기 찾아볼수 없는 병사들에 대한 위대한 사랑의 전설을 수놓아오시였습니다. 그가운데는 녀성해안포병들에게 돌려주신 사랑의 약크림에 대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어느 한 녀성해안포병중대에 찾아오시여 군인들의 전투훈련과 생활의 구석구석에 이르기까지 따뜻이 보살펴주시였습니다.

주체84(1995)년 2월 어느날 꿈결에도 뵙고싶은 아버지장군님을 자기들의 초소에 모시게 된 중대군인들은 너무도 감격하여 어쩔바를 몰라하였습니다.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파도 세찬 방파제우에 몸소 오르시여 군인들의 화력복무훈련을 지도하여주시였습니다.

그날따라 날씨는 춥고 바다바람이 매우 세찼습니다.

수행한 일군이 세찬 바람을 맞으시는 위대한 대원수님께 모자를 가져다드렸습니다.

그러자 위대한 대원수님께서는 중대장동무랑 바다바람에 훈련하느라 얼굴이 텄다는데 내가 모자를 쓰면 되겠는가고 하시며 굳이 사양하시였습니다.

중대군인들은 전사들과 다름없이 파도 세찬 방파제우에서 찬바람을 맞으시는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일**대원수님의 모습을 우러르며 솟구치는 격정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윽고 화력복무훈련이 시작되였습니다.

군인들은 번개같이 날랜 동작으로 자기 번수동작들을 훌륭히 수행하였습니다.

그들의 훈련모습을 보아주신 위대한 대원수님께서는 매우 만족해하시면서 전체 조선인민군장병들이 해안포병구분대와 같이 조국의 모든 초소들을 철벽으로 지키고있기에 적들이 우리 나라에 범접하지 못한다고 말씀하시였습니다.

그러시면서 모든 해안포병들이 훈련을 싸우는 군대맛이 나게 잘하여 모두가 일당백의 명포수로 준비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습니다.

이날 중대군인들의 훈련을 보아주시고나신 위대한 대원수님께

서는 이어 중대병실을 비롯한 여러곳을 차례로 돌아보시며 생활의 구석구석까지 구체적으로 보살펴주시였습니다.

깨끗이 정돈된 병실을 둘러보시던 위대한 대원수님께서는 군인들의 사물함을 열어보시였습니다.

거기에는 학습장과 세면도구, 내의 등이 가쯘히 놓여있었습니다.

위대한 대원수님께서는 사물함에서 몸소 크림통을 꺼내드시고 냄새를 맡아보시였습니다.

옆에 서있던 지휘관이 크림에 물기가 있어 그것을 바르고 전투근무에 나가면 얼굴과 손이 트지만 크림과 함께 분을 바르고 나가면 잘 트지 않는다고 보고드리였습니다.

그러자 위대한 대원수님께서는 분을 바르면 얼굴과 손이 트지 않는다는데 해결해주자고 말씀하시였습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녀성해안포병들에게 친부모된 심정으로 사랑의 약크림을 보내주시였습니다.

이날 녀성해안포병중대에 대한 현지시찰을 마치고 돌아오신 위대한 대원수님께서는 일군들을 부르시였습니다.

위대한 대원수님께서는 오늘 시간이 모자라서 녀성군인들의 의견을 다 들어보지 못했는데 아무래도 녀성군인들의 생활실태를 구체적으로 알아오게 해야 할것 같다고 하시며 몇명의 녀성일군들에게 중대에 갔다오라고 이르시였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녀성일군들이 중대에 내려가 군인들의 생활을 구체적으로 료해하고 돌아와 그 정형을 위대한 대원수님께 보고드리였습니다. 그러면서 중대장의 얼굴이 많이 텄다고 말씀올리였습니다.

그러자 위대한 대원수님께서는 아침에 갈 때 약크림을 가져다주지 않았는가고 물으시였습니다. 일군이 약크림을 보내지 못했다고 보고드리자 왜 약크림을 보내지 않았는가고 엄하게 말씀하시였습니다.

그러시면서 어제 많은 일군들이 나를 따라 녀성해안포병중대에 갔다왔지만 녀성군인들이 바다바람에 얼굴이 튼데 대하여 가슴아파하지 않고있다고 지적하시면서 래일 아침 당장 약크림과 고약을 가져다주어야 하겠다고 말씀하시였습니다.

이렇게 되여 이튿날 아침 한 일군이 고약과 약크림을 가지고 중대에 내려가게 되였습니다.

구체적인 사용방법까지 씌여져있는 약크림과 고약을 받아든 중대군인들은 위대한 대원수님의 어버이사랑에 너무도 감격하여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 또 흘렸습니다.

오늘 사람들의 심금을 뜨겁게 하여주며 전설같이 전해지는 혁명일화 《녀성해안포병과 약크림》은 이렇게 생겨났습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그후에도 이곳 녀성해안포병들에게 뜨거운 사랑과 은정을 거듭 돌려주시였습니다.

위대한 대원수님께서는 중대군인들모두를 평양에 부르시여 뜻깊은 나날을 보내도록 하여주시고 대를 두고 길이 전할 사랑의 선물도 안겨주시였습니다.

그리고 감이 익는 계절에 다시 오겠다고 하신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또다시 중대에 찾아오시여 사랑의 기념사진도 찍어주시며 친어버이사랑을 베풀어주시였습니다.

참으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은 언제나 인민군전사들과 인민들모두를 사랑의 한품에 안아 따뜻이 보살펴주신 자애로운 어버이이시였습니다.

제 23 과
인민군대를 혁명의 주력군으로

오늘 우리 인민군대는 선군시대의 혁명의 기둥, 주력군답게 조국보위도 사회주의건설도 다 맡아 해제끼며 백두산혁명강군의 위용을 온 세상에 떨쳐가고있습니다.

이것은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의 선군혁명령도가 안아온 빛나는 결실입니다.

주체85(1996)년 한해가 다 저물어가던 12월 24일이였습니다.

이날은 **김정일**대원수님을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 높이 모신 5돐이 되고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어머님 탄생 79돐이 되는 날이였습니다.

이 뜻깊은 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인민군대를 선군시대 혁명의 주력군으로 내세우신 깊은 의도를 뚜렷이 밝혀주시였습니다.

김정일대원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조선인민군 지휘성원들이 대원수님께서 계시는 곳으로 달려갔을 때였습니다.

우리 당의 선군령도를 총대로 받들어 준엄한 혁명의 길을 앞장에서 헤쳐나가고있는 인민군지휘성원들을 믿음어린 눈길로 둘러보시던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인민군대를 혁명의 기둥으로 믿고 앞장에 내세워 혁명의 준엄한 난국을 타개하려는것은 나의 철석의 의지입니다.**》라고 힘주어 말씀하시였습니다.

이윽고 위대한 대원수님께서는 자신께서 왜 인민군대를 중시하는가 하는 리치를 잘 알아야 한다고 하시면서 말씀을 이으시였습니다.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수령님께서는 전후에 강선의 로동계급부터 먼저 찾으시고 로동계급을 불러일으켜 조성된 난국을 타개하시였다, 그러나 지금은 그때와 사정이 다르다, 지금은 인민군대에

서 자력갱생의 본보기도 나오고 혁명의 법칙도 나오고있다고 하시였습니다.

그러시면서 혁명의 기둥인 인민군대가 강해야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를 끄떡없이 지켜낼수 있다고 가르치시였습니다.

이날의 가르치심은 인민군대를 혁명의 기둥으로, 주력군으로 내세워야 사회주의위업도 고수할수 있고 주체혁명위업도 끝까지 완수할수 있다는것을 더욱 깊이 새겨주었습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사회주의건설의 어렵고 중요한 부문을 인민군대에 맡겨주시고 그 돌파구를 열어나가도록 이끌어주시였습니다.

고난의 행군이 한창 진행되고있던 주체86(1997)년 10월 어느날이였습니다.

인민군지휘성원들을 몸가까이 불러주신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사회주의건설의 중요한 부문을 인민군대에 맡기려 한다고 말씀하시였습니다.

사실 그때 어디서나 요구되는것이 전력문제였고 전기가 보장되지 않아 수많은 공장, 기업소들이 돌아가지 못하고있는 형편이였습니다.

위대한 대원수님께서는 일군들을 둘러보시며 우리는 인민군대를 제일 믿기때문에 지금 애를 먹고있는 전선인 전력과 석탄, 철도운수부문도 군대가 맡아 추켜세우도록 한것이라고 말씀하시였습니다.

인민군대에 의거하여 걸린 문제를 한고리한고리씩 풀어나가시려는 위대한 대원수님의 드팀없는 의지앞에서 일군들은 새로운 충격을 받았습니다.

위대한 대원수님의 높은 뜻을 받들고 인민군부대들이 인민경제 여러 중요전선에 달려나갔습니다.

인민군대가 사회주의건설의 중요단위들에서 돌파구를 열어나가니 온 사회에는 혁명적군인정신이 나래치고 우리 인민들은 승리

의 신심과 락관에 넘쳐 무비의 힘을 남김없이 발휘하면서 비약과 기적을 창조해나갔습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생산문화, 생활문화를 확립하며 자체로 살림살이를 꾸려나가는데서도 인민군대를 본보기로 내세워주시였습니다.

주체85(1996)년 6월 어느날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어느 한 인민군부대의 후방기지를 찾아주시였습니다.

이 부대에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의 유훈을 높이 받들고 모든것이 부족하고 어려운 조건에서도 자체의 힘으로 길이가 600m나 되는 태양열온실을 건설하였으며 버섯재배장, 오리목장, 돼지목장도 번듯하게 꾸려놓았습니다.

또한 돌을 춰내고 흙을 날라다 펴서 강냉이밭과 남새밭도 훌륭히 만들어놓은것을 비롯하여 후방조건을 충분히 마련하고있었습니다.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만면에 환한 미소를 담으시고 요란하다고, 아주 좋은 일이라고, 전군, 전민의 전형이라고 거듭 치하해주시였습니다.

이윽고 위대한 대원수님께서는 일군들을 둘러보시며 항일유격대원들의 깐진 살림살이기풍을 본받아 부대관리를 잘하고있는 이 부대의 경험을 일반화하여야 하겠다고 가르치시였습니다.

위대한 대원수님의 세심한 지도밑에 그해 가을 이 부대에서는 당과 정부의 간부들과 도, 시, 군의 책임일군들, 인민군대안의 지휘관들이 참가한 큰 규모의 방식상학이 여러차례 진행되였습니다.

그후 인민군대에서 창조된 모범을 따라배워 살림살이를 자체로 꾸려나가기 위한 투쟁이 전사회적으로 힘있게 벌어졌습니다.

이렇듯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력사에 류례없는 선군정치를 펼치시는 나날에 언제나 인민군대를 혁명의 기둥, 주력군으로 내세우시고 인민군대를 본보기로 하여 준엄한 혁명의 난국을 헤쳐나가시였습니다.

주력군 — 어떤 투쟁이나 혁명에 참가하는 주되는 력량. 다시말하여 혁명을 이끌어나가는 핵심적인 력량.

제 24 과
감자농사혁명

먹는 문제는 사람들의 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문제입니다.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우리 인민의 식생활에 깊은 관심을 돌리시고 어려운 식량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감자농사혁명의 새 력사를 펼쳐주시였습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감자농사혁명을 구상하여오시였습니다.

주체85(1996)년 5월 하순 어느날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량강도를 찾아주시였습니다. 도착하시는 길로 량강도의 한 책임일군을 몸가까이 불러주신 위대한 대원수님께서는 지난해 감자농사형편을 알아보시였습니다.

일군의 보고를 들으신 위대한 대원수님께서는 잠시 생각에 잠기시였습니다.

그러시다가 보천보전투승리 35돐기념행사때 량강도에 와서 80가지 감자음식을 보던 때의 일이 생각난다고 하시며 요즘 그때의 일을 자주 회상해보군 하는데 감자농사를 해야 먹는 문제를 풀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게 된다고 말씀하시였습니다.

위대한 대원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일군의 머리속에는 20여년전의 잊지 못할 일들이 삼삼히 떠올랐습니다.

그때가 바로 주체61(1972)년 5월이였습니다.

몸소 량강도에 오시여 보천보전투승리 35돐기념행사준비를 지도하시던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어느날 량강도의 책임일군을 부르시였습니다.

만면에 환한 미소를 지으시고 그를 반갑게 맞아주신 위대한 대원수님께서는 그에게 오늘 저녁에 감자음식을 좀 준비해야 하겠다고 말씀하시였습니다.

《아니?! … 감자음식말입니까?》

너무도 뜻밖이여서 일군은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반문하였습니다. **김일성**대원수님을 모시고 진행하게 될 행사가 박두한 때인만큼 그 준비와 관련한 가르치심을 주실줄로만 알고있었는데 뜻밖에 감자음식을 준비하라니 어리둥절해지기까지 하였습니다.

일군의 속마음을 헤아려보신듯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웃으시며 그럴 필요가 있으니 꼭 준비해야겠다고 하시면서 감자를 가지고 만드는 음식은 한가지라도 빼놓지 말고 다 만들어야겠다고 재삼 강조하시였습니다.

일군은 즉시로 해당 일군들을 불러 감자음식을 만들기 위한 조직사업을 하였습니다.

감자음식을 다 차려놓고보니 그 가지수가 무려 80여가지나 되였습니다. 감자농마국수, 감자떡, 감자찰떡, 감자빵, 감자경단, 감자카스테라, 감자묵, 감자엿, 감자전골…

그날 늦은 밤이였습니다.

온종일 행사준비로 바쁜 시간을 보내신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감자음식을 준비했다는 보고를 받으시고 잠시의 휴식도 없이 곧바로 어느 한 식당에 나오시였습니다.

방에 들어서신 위대한 대원수님께서는 한순간 놀라는 기색이시였습니다.

보기만 해도 먹음직스러운 감자음식들을 둘러보시던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굉장해, 굉장해…》** 하시며 감탄을 금치 못

해하시였습니다.

위대한 대원수님께서는 일군들에게 오늘 이렇게 감자로 만든 음식을 보고나니 더욱 확신이 생긴다고 하시면서 량강도에서 감자농사를 한번 잘해보라고 말씀하시였습니다.

그제서야 일군은 위대한 대원수님께서 감자음식을 준비하도록 하신 의도를 어렴풋이나마 깨달을수 있었습니다.

돌이켜보면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먹는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그때에 벌써 감자농사혁명을 구상하시였던것입니다.

감자농사에서 혁명을 일으킬 원대한 구상을 무르익혀오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대홍단에 감자농사혁명의 불길을 지펴주시였습니다.

주체87(1998)년 1월 중순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령하 40℃를 오르내리는 강추위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또다시 량강도를 찾아주시였습니다.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이곳 일군들에게 이제부터 감자농사에서 혁명을 일으키려고 한다고 하시면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 감자농사를 잘하여 우리 나라를 아시아의 감자왕국으로 만들어야 합니다.》**라고 힘주어 말씀하시였습니다.

그후 위대한 대원수님께서는 대홍단을 감자농사혁명의 본보기로 내세워주시고 감자농사에서 전국의 앞장에서 나가도록 정력적으로 이끌어주시였습니다.

위대한 대원수님께서는 머나먼 대홍단에 여러차례 찾아오시여 감자농사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하나하나 풀어주시였습니다.

위대한 대원수님께서는 이 농장에서 감자를 많이 심어 정보당 40t, 50t, 60t씩 생산하게 되면 그 많은것을 손으로 캘수 없다고 하시면서 대홍단에서 영농작업의 종합적기계화를 남먼저 실현하여 전국의 본보기가 되여야 한다고 가르쳐주시였습니다.

또한 감자농사에서 제기되는 로력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

여 1 000여명의 끌끌한 제대군인들도 파견해주시였으며 감자종자 문제해결과 저장, 가공에서 제기되는 문제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으로 가르쳐주시였습니다.

위대한 대원수님께서는 대홍단에 파견된 제대군인들이 아무런 근심걱정이 없이 감자농사를 잘해나가도록 그들에게 훌륭한 살림집도 마련해주시였으며 사랑의 선물도 안겨주시였습니다.

그리고 새집들이를 한 그들의 모습이 보고싶으시여 몸소 살림집에 찾아오시여 친부모도 주지 못할 뜨거운 사랑과 은정을 돌려주시였습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의 정력적인 지도와 뜨거운 사랑에 의하여 오늘 백두삼천리벌은 그 어디 가나 감자풍년이 마련되고 대홍단은 더욱 살기 좋은 고장으로 변모되였습니다.

제 25 과
《광명성1》호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가장 간고하고 준엄하였던 고난의 행군, 강행군시기에 우리 나라에서 첫 인공지구위성 《광명성1》호를 쏴올리도록 하시여 우리 인민에게 힘과 용기를 안겨주고 주체조선의 위력을 다시금 온 세상에 떨치도록 하시였습니다.

인공지구위성은 현대과학기술의 종합체로서 고도의 높은 과학기술과 많은 자금이 있어야 개발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도 자체로 인공지구위성을 만들어내는 나라는 불과 몇개밖에 없었습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우리의 힘, 우리의 기술, 우리의 지혜로 인공지구위성을 만들어내도록 이끌어주시였습니다.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과학자, 기술자들에게 인공지구위성연구사업을 다그칠데 대한 과업을 주시였습니다.

어느해 가을이였습니다.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친히 인공지구위성연구개발정형을 구체적으로 알아보시였습니다.

그러시고는 이제는 위성을 개발할수 있는 가능성이 마련되였다고 하시면서 위성을 쏴올리기 위한 연구사업을 더욱 다그칠데 대한 무겁고도 영예로운 과업을 주시였습니다.

위대한 대원수님께서는 우리 나라의 경제형편이 어려운 조건에서도 부강조국의 래일을 위하여 많은 자금을 인공지구위성을 개발하는데 돌려주시였습니다.

위대한 대원수님의 크나큰 신임과 믿음에 무한히 고무된 과학자들과 기술자들은 하루빨리 인공지구위성을 개발하여 대원수님께 보고드릴 불타는 일념을 안고 낮과 밤이 따로 없는 긴장한 전투를 벌려나갔습니다.

위대한 대원수님께서는 인공지구위성을 성과적으로 개발할수 있도록 신심과 지혜를 안겨주시였습니다.

인공지구위성을 개발하는 사업은 첫걸음부터 수많은 애로와 난관에 부딪쳤습니다.

과학자, 기술자들이 지혜를 짜내여 수십건의 연구방안들을 내놓았으나 신통한것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되자 일부 사람들속에서는 우리가 자체로 인공지구위성을 만들어낼수 있겠는가 하고 동요하였고 또 어떤 사람들은 남을 쳐다보는 현상도 나타나기 시작하였습니다.

바로 이러한 때 위대한 대원수님께서는 인공지구위성연구개발사업을 또다시 료해하시였습니다.

연구집단이 합리적인 방안을 찾지 못하여 애를 먹고있는 실태를 보고받으신 위대한 대원수님께서는 그 연구방향과 방도를 하나

하나 가르쳐주시였습니다.

참으로 대번에 과학자들의 눈을 틔워주는 명안이였습니다.

연구집단은 신심에 넘쳐 위대한 대원수님께서 가르쳐주신대로 설계에 들어갔습니다. 그들은 긴장한 전투를 벌려 보통때 같으면 5년동안에 할수 있는 방대한 량의 설계를 불과 1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완성하는 기적을 창조하였습니다.

설계가 완성되는데 따라 다계단운반로케트와 인공지구위성을 만들기 위한 전투가 힘있게 벌어졌습니다.

그리하여 남들이 수십년 걸려도 만들어내지 못한 인공지구위성을 단 2년동안에 자체의 힘과 기술로 훌륭히 완성하는 커다란 성과를 이룩하였습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공화국창건 50돐을 빛내이기 위한 력사적진군이 힘있게 벌어지고있던 뜻깊은 시기에 인공지구위성을 발사하도록 하시였습니다.

드디여 고대하고 고대하던 력사의 시각이 왔습니다.

주체87(1998)년 8월 31일 우리 나라의 첫 인공지구위성 《광명성1》호가 발사되였습니다.

푸른 창공을 헤가르며 혜성마냥 긴 불줄기를 달고 날아오르기 시작한 3계단운반로케트는 4분 53초만에 인공지구위성을 정확히 궤도에 진입시켰습니다.

인공지구위성《광명성1》호의 성공적인 발사는 **김일성**민족, 주체조선의 위력을 또다시 온 세상에 시위한 위대한 승리였습니다.

위대한 대원수님께서는 우리 나라에서 첫 인공지구위성을 쏴올렸다는것을 조선중앙통신과 TV방송을 통하여 특별보도로 알리게 하시였습니다.

100% 자체의 힘으로 개발한 인공지구위성발사를 단번에 성공시켰다는 소식은 온 세계를 깜짝 놀래웠습니다.

사실 우주과학기술이 발전했다고 하는 나라들에서도 여러번

실패끝에야 성공한 실례가 적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단 한번의 발사로 성공하였으니 이것은 서방의 우주강국들에게도 청천벽력이였습니다.

우리의 인공지구위성발사소식이 세상에 공개되자 북조선이 미싸일을 발사했다고 앙탈을 부리던 일본놈들과 우리 공화국을 고립압살하려고 미쳐날뛰던 제국주의자들은 된타격을 얻어맞고 쏙 기여들어가고말았습니다.

참으로 인공지구위성 《광명성1》호의 발사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의 선군혁명령도가 낳은 또 하나의 자랑찬 승리였으며 우리 당 과학기술중시정책이 낳은 위대한 열매였습니다.

제 26 과
강원땅에 안아오신 천지개벽

우리 나라에서 토지정리의 새 력사가 펼쳐져 세세년년 내려오던 올망졸망한 뙈기논밭들이 옛 흔적을 말끔히 가시고 사회주의조선의 땅답게 변모되게 된것은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의 현명한 령도의 결과입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강원땅에서부터 먼저 토지정리를 할 원대한 구상을 펼쳐주시였습니다.

주체87(1998)년 5월 어느날 이른새벽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전선동부의 최전연부대들에 대한 현지시찰의 길에 오르시였습니다.

위대한 대원수님께서는 줄곧 달리는 승용차의 차창밖을 내다보시며 저 필요없는 논두렁과 밭최뚝을 없애고 토지정리를 잘하면 거기에서도 많은 땅을 얻어내여 알곡생산을 늘일수 있지 않겠는가고 생각하시였습니다.

험한 철령을 넘어 끝없이 달리던 차가 강원도 창도군의 어느

한 리에 들어섰을 때였습니다.

위대한 대원수님을 모신 차가 문득 멈춰서는것이였습니다. 수행하던 일군들이 영문을 몰라 급히 위대한 대원수님께로 달려갔습니다.

이윽고 차에서 내리신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일군들을 둘러보시며 **《여기서 좀 쉬고 갑시다.》**라고 말씀하시였습니다.

일군들은 긴장감을 풀며 의아한 표정으로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아무리 둘러보아야 그곳은 휴식장소로는 적당치 못한 허허벌판이였습니다.

아무 말씀없이 길옆의 포전으로 다가가신 위대한 대원수님께서는 오래도록 그 주변의 논밭들을 바라보시였습니다.

좁고 길다란 뙈기논들이 볼모양없이 널려져있었고 거미줄같은 논두렁들이 얼기설기 그어져있었습니다.

이 벌이 얼마나 많은 뙈기논천지였는가는 먼 옛날 뙈기논 하나를 잃어버린 농군이 온종일 찾아헤메다가 저녁녘에 자기가 벗어놓았던 갓밑에서 찾았다는 이야기가 전설처럼 전해지고있는데서도 잘 알수 있었습니다.

이윽토록 그 논배미들을 둘러보시던 위대한 대원수님께서는 동행한 일군들에게로 시선을 옮기시였습니다.

그러시고는 토지정리를 하자고, 강원도토지정리는 자신께서 이미 생각해온 문제이며 확고한 결심이라고 하시면서 이제는 토지정리를 할 때가 되였다고 엄숙히 말씀하시였습니다.

위대한 대원수님의 말씀에 접한 일군들모두가 커다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한개 리나 군도 아니고 강원도의 전체 토지를 정리하다니. …더구나 지금처럼 나라가 어려움을 겪고있는 때에 여기에 드는 기름은 어떻게 해결할것인가…)

정말 생각만 해도 아름찬 일이였습니다.

일군들의 이러한 속생각을 헤아려보신 위대한 대원수님께서는

확신에 넘친 어조로 이 사업이 아름차기는 하지만 한번 해볼만 한 일이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는가, 우선 전국에 불도젤이 얼마나 되며 지금 무엇을 하고있는가를 알아보라, 보나마나 특별히 하는 일이 없을것이라고 하시면서 기름은 자신께서 다 풀어주겠으니 전국의 불도젤들을 다 강원도토지정리에 부르자고 힘주어 말씀하시였습니다.

정말 그 누구도 감히 생각할수 없는 대담한 작전, 명철한 방안이였습니다.

이렇게 강원도의 토지정리사업은 찬이슬 내리는 새벽 전선길의 어느 한 들판에서 격식없이 선포되였습니다.

토지정리의 원대한 구상을 펼쳐주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강원도토지정리를 와닥닥 끝내기 위한 대담하고 통이 큰 작전을 펼치시였습니다.

위대한 대원수님께서는 전국이 총동원되여 강원도의 토지를 정리할데 대한 국방위원회 명령을 내려보내시고 전국의 불도젤을 강원도에 집중하도록 하시였으며 수많은 로력을 토지정리전투장에 파견해주시였습니다.

그리하여 위대한 대원수님의 명령을 받은 인민군군인들과 각도 돌격대원들이 강원땅으로 달려왔고 1 850여대의 대기계화군단이 토지정리장으로 모여오게 되였습니다.

토지정리가 한창 벌어지고있던 그해 12월 어느날이였습니다.

위대한 대원수님께서는 토지정리를 현지에서 지도해주시기 위하여 고산군의 어느 한 포전을 찾아주시였습니다.

그날은 진눈까비가 내려 포전길이 여간만 질벅하지 않았습니다.

한 일군이 위대한 대원수님께 땅이 너무 질어 더 들어가실수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자 위대한 대원수님께서는 일없다고, 좀 더 나가보자고 하시며 진흙탕길에 서슴없이 들어서시였습니다. 그러느라니 신발에는 신발보다 더 큰 흙덩이가 매여달리게 되였습니다.

그 흙덩이때문에 걷기 불편해하시는 위대한 대원수님을 우러르며 일군들은 눈굽을 적시였습니다.

포전가까이에 이르신 위대한 대원수님께서는 토지정리정형을 구체적으로 알아보시였습니다.

위대한 대원수님께서는 일군들이 토지정리를 뚝이나 몇개 없애는 식으로 소극적으로 하고있는 실태를 료해하시고 토지정리에서 지켜야 할 원칙과 방향을 하나하나 밝혀주시였습니다. 토지정리를 통이 크게 하여 논 한배미의 크기를 300평이 아니라 800～1000평으로 되게 하며 모든 논을 직선직각으로 정리하여야 한다고 가르치시였습니다.

위대한 대원수님께서는 그후에도 여러차례 강원도 토지정리전투장을 찾아주시였습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의 정력적인 지도에 의하여 강원도의 토지는 새롭게 변모되였습니다.

드디여 바둑판처럼 희한하게 정리된 논벌에 위대한 대원수님을 모시는 영광의 시각이 왔습니다.

끝간데없이 규모있게 펼쳐진 논벌을 바라보시던 위대한 대원수님께서는 바로 이런것을 두고 천지개벽이라고 한다고, 이제는 서해벌방지대 사람들이 오히려 강원도를 부러워하게 되였다고 못내 기뻐하시였습니다.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절절하신 음성으로 말씀하시였습니다.

《우리 농민들을 어렵고 힘든 일에서 완전히 해방하시려고 그처럼 마음쓰시던 어버이수령님께서 생존해계시여 강원도에 와보시였더라면 얼마나 기뻐하시였겠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위대한 대원수님의 눈가에는 뜨거운것이 맺히였습니다.

참으로 강원도의 천지개벽은 언제나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의

구상과 의도를 빛나게 실현하시기 위하여 그토록 마음쓰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 안아오신 귀중한 결실이였습니다.

제 27 과
장군님의 소원이 풀린 날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우리 인민들을 세상에서 제일 잘 살고 행복한 인민으로 되게 하시려고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치시였습니다.

온 나라 곳곳에 일떠선 기초식품공장과 정제소금공장, 메기공장, 닭공장 등 현대적인 공장들도 **김정일**대원수님의 사랑속에 건설된것입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일군들이 인민생활에 대한 옳바른 관점을 가지도록 이끌어주시였습니다.

주체87(1998)년 5월 어느날이였습니다.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인민군대에서 새로 건설한 정제소금공장을 찾아주시였습니다.

이 정제소금공장은 인민군군인들과 인민들의 식생활을 개선하기 위하여 늘 마음을 쓰시는 **김정일**대원수님의 뜨거운 사랑에 의하여 일떠선 공장입니다.

위대한 대원수님께서는 친히 공장건설을 발기하시고 공장의 터전도 잡아주시였으며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도 일일이 풀어주시였습니다.

새로 건설된 공장에 나오신 위대한 대원수님께서는 공장구내에 있는 《정제소금생산공정도》앞에 이르시여 소금생산공정을 구체적으로 알아보시였습니다.

일군들로부터 공장건설에 어떤 설비와 자재가 들었는가도 일

일이 료해하신 위대한 대원수님께서는 왜서인지 심중한 안색을 지으시였습니다.

일군들은 혹시나 위대한 대원수님께서 바라시는대로 정제소금공장건설이 잘되지 못했는가 하는 생각으로 마음이 긴장되여있었습니다.

잠시후 위대한 대원수님께서는 일군들을 둘러보시며 정제소금을 생산하는 공정이 간단하고 별것이 아닌데 우리 일군들이 왜 이런 공장을 건설할 생각을 하지 않았는지 모르겠다고 하시였습니다.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우리 일군들속에 이런 정제소금을 인민들에게 먹일 생각을 한 사람이 누구인가고 하시며 **《문제는 우리 일군들이 인민들에게 보다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을 마련하여주어야 하겠다는 확고한 관점과 립장을 가지고 이악하게 노력하지 않은데 원인이 있습니다. 털어놓고 말하여 지금 형편에서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정제소금공장을 건설하는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말씀을 이으시였습니다.

위대한 대원수님께서는 우리 인민들과 인민군군인들에게 지금까지 정제소금을 먹이지 못한것이 가슴에서 내려가지 않으시는듯 말씀을 외우고 또 외우시였습니다.

사실 철판과 양수기, 관류와 세멘트 같은것만 있으면 정제소금공장은 얼마든지 건설할수 있는것이였습니다. 그런데 지난 기간 일군들속에서 인민생활에 대한 관점이 바로 서있지 못한데로부터 정제소금공장을 건설할 생각을 하지 못하고있었던것입니다.

위대한 대원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안으며 일군들은 인민의 충복으로서 인민생활을 높이기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갈 마음속결의를 굳게 다지였습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이날 공장의 여러 직장들을 돌아보시면서 이제는 소원이 풀렸다고 하시며 대단히 만족해하시였습니다.

정제소금생산직장에 들리신 위대한 대원수님께서는 설비들의 가동상태와 생산정형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습니다.

그러시다가 일군들을 둘러보시며 인류의 발생발전은 불과 함께 소금의 발견으로 시작되였다고 볼수 있다고 하시면서 사람들의 식생활에서 없어서는 안될 소금의 중요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였습니다.

제품포장실에 들리신 위대한 대원수님께서는 저장통에서 요드분무기계에 쏟아져내리는 정제소금을 한동안 살펴보시였습니다.

위대한 대원수님께서는 정제소금이 쏟아져내리는것을 보니 기분이 좋다고 만족해하시면서 떨어지는 소금을 손에 받으시여 친히 맛까지 보아주시였습니다. 그러시고는 소금이 맛이 좋고 기막히게 새하얗다고 하시며 옆에 있는 한 일군에게 집에서 이런 소금을 먹어보았는가고 물으시였습니다.

그가 아직 먹어보지 못했다고 대답올리자 위대한 대원수님께서는 정력에 넘친 음성으로 정제소금은 인민군대가 먼저 먹게 되였다고, 사회주의농촌이 하도 좋아 도시처녀가 농촌으로 시집가듯이 사회일군들이 정제소금맛을 보러 인민군대에 찾아오게 되였다고 말씀하시며 호탕하게 웃으시였습니다.

모두들 즐겁게 따라 웃었습니다.

제품창고를 비롯하여 공장안을 다 돌아보시고 구내에 나오신 위대한 대원수님께서는 다시금 공장구내와 주변을 둘러보시였습니다.

그러시다 나직한 음성으로 오늘 여기에 와서 정제소금을 보니 어느 한 인민군부대의 식당에 들리였을 때의 일이 생각난다고 하시였습니다.

위대한 대원수님께서는 그때 식탁에는 먹음직스러운 게사니알들이 올랐는데 거기에 무엇을 찍어먹는가고 물어보려다가 시꺼먼 소금에 찍어먹을것이 뻔하기때문에 그만두었다, 그날의 일이 가슴

에 맺혀 좀처럼 내려가지 않았는데 오늘은 정말 기분이 좋다고 말씀하시였습니다.

그러시면서 인민군군인들이 이런 정제소금을 공급받게 되면 대단히 좋아할것이라고, 이제는 우리 인민군군인들에게 맛있고 질좋은 간장과 소금을 먹이려던 나의 소원이 풀렸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였습니다.

우리 군대와 인민들에게 맛있고 영양가높은 여러가지 기초식품을 더 많이 먹이시려는것을 소원으로까지 소중히 간직하시고 그처럼 만족해하시는 위대한 대원수님을 우러르며 일군들은 뜨거운것을 삼키였습니다.

이렇듯 인민들의 행복에서 기쁨을 찾으시고 인민들이 바라는것이라면 이 세상 모든것을 다 안겨주고싶어하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의 뜨거운 사랑은 하늘의 높이에도, 바다의 깊이에도 비길수 없는것이였습니다.

정제소금 ㅡ 소금에 섞인 잡것을 없애여 그 물질을 더 순수하게 만든것.

제 28 과
백두산밀영을 찾으시여

백두산밀영은 조선혁명을 빛나는 승리에로 이끌어오신 백두산3대장군의 불멸의 업적이 깃들어있는 영광스러운 혁명전적지입니다.

특히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께서 백두광명성으로 탄생하신 력사의 고향집과 **정일**봉이 있어 백두산밀영은 더욱더 세상에 널리 알려져있습니다.

주체89(2000)년 3월 어느날이였습니다.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깊은 눈길을 헤치시며 백두산밀영을 찾아주시였습니다.

유서깊은 곳에 위대한 대원수님을 모신 끝없는 기쁨인양 하얀 눈으로 뒤덮인 백두산밀영의 설경은 참으로 아름다왔습니다.

감회가 깊으신듯 두손을 허리에 얹으시고 소백수골을 굽어보시던 위대한 대원수님께서는 백두산밀영에 오래간만에 와보았는데 눈덮인 혁명전적지의 풍경이 참으로 볼만 하다고 하시며 대단히 만족해하시였습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친필송시비를 돌아보시며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의 혁명사적이 더욱 빛나게 하여야 한다고 가르치시였습니다.

강사의 안내를 받아 친필송시비앞에 다가서신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김일성**대원수님에 대한 그리움이 사무쳐오는듯 아무 말씀도 없이 한동안 비를 바라보고만 계시였습니다. **김일성**대원수님께서 탄생 50돐을 맞으시는 **김정일**대원수님께 지어주신 뜻깊은 송시였습니다.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이윽고 격정에 젖은 음성으로 친필송시비를 언제 세웠는가고 나직이 물으시였습니다.

강사는 1993년 2월 **김정일**대원수님의 탄생일을 맞으며 이 송시비를 세웠다고 말씀드리였습니다.

그리고는 울먹울먹한 목소리로 《친필송시비가 완성되자 어버이수령님께서 제일먼저 찾아오시여 **정일**봉을 배경으로 송시비를 아주 잘 세웠다고 대단히 기뻐하시며 오래도록 이 자리를 뜨지 못하시다가 저 시를 소리내여 읽어… 보셨…》 하고 말끝을 채 잇지 못하였습니다.

곁에 있던 일군들도 뜨거움에 목이 메여 눈굽을 적셨습니다.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조용히 손수건을 눈가로 가져가시였습니다.

백두산밀영에 세워진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의 친필송시비

백두산마루에 정일봉 솟아있고
소백수 푸른 물은 굽이쳐 흐르누나
광명성 탄생하여 어느덧 쉰돐인가
문무충효 겸비하니 모두다 우러르네
만민이 칭송하는 그 마음 한결같아
우렁찬 환호소리 하늘땅을 뒤흔든다

1992. 2. 16 김 일 성

백두밀림도 이 순간만은 **김일성**대원수님이 그리워서인지 고요속에 가벼이 설레이고있었습니다.

잠시후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정적을 깨뜨리시며 **《백두산밀영고향집에 세운 수령님의 친필송시비가 아주 품위있게 잘되였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본 비들가운데서 제일 잘된것 같습니다. 친필송시비가 마음에 듭니다.》**라고 뜨겁게 말씀하시였습니다.

이어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송시비옆에 놓은 유리섬유로 만

든 **김정일**화에 시선을 멈추시였습니다.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그것을 가리키시며 저렇게 꽃을 놓으면 답사자들의 눈길이 거기에 먼저 가지 비에 가지 않는다고 지적하시면서 사적일군들은 그 무엇을 하나 해도 **김일성**대원수님의 사적이 빛이 나도록 하는데 주의를 더 돌려야 한다고 말씀하시였습니다.

이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고향집이며 사령부귀틀집, 대원실도 돌아보시면서 혁명사적물을 더 잘 보존하고 관리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들을 가르쳐주시였습니다.

고향집뜨락에 들어서신 위대한 대원수님께서는 눈덮인 **정일**봉과 고향집을 한동안 바라보시다가 강사에게 이곳의 눈이 언제면 다 녹는가고 물으시였습니다.

5월말경이 되여야 눈이 다 녹는다는 대답을 들으신 위대한 대원수님께서는 그런데 지붕우의 눈은 왜 치지 않고 쌓아두고있는가고 다시 물으시였습니다.

답사자들에게 백두산밀영의 설경을 보여주느라고 그냥 둬두고 있다는 강사의 대답을 들으신 위대한 대원수님께서는 고향집지붕우에 쌓인 눈을 그대로 둔것은 잘못되였다고 하시면서 뜨락은 눈을 쳐서 뜨락맛이 나서 좋은데 귀틀집은 지붕우의 눈을 치지 않아 귀틀집맛이 나지 않는다고 하시였습니다.

일군들은 새로운 눈으로 지붕우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정말 고향집벽면만 아니라면 눈에 묻힌 집이 귀틀집인지 무슨 집인지 분간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위대한 대원수님께서는 항일유격대원들은 간고한 투쟁속에서도 어디에 가나 숙영지를 알뜰히 꾸리고 그 주변을 깨끗하게 거두었다고 하시면서 일반적으로도 사람들이 사는 집에서는 눈이 온 다음에 눈을 친다, 그렇지 않으면 게으른 집처럼 보인다, 그런데 고향집지붕우의 눈을 치지 않는다는것이 말이 되는가, 그것은 말

도 되지 않으며 인민들을 교양하는데서도 의의가 없다고 지적하시였습니다.

계속하시여 전적지일군들에게 사령부귀틀집과 고향집, 대원실은 항일유격대원들이 생활하던 그대로 거두어야 한다고, 그래야 답사자들에게 해설을 항일유격대식생활기풍에 맞게 바로 할수 있다고 거듭 강조하시였습니다.

전적지일군들은 그저 겨울풍경만을 생각하면서 전적지관리운영에서 중요한 문제를 놓친 자기들의 잘못을 깊이 느끼였습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혁명전통교양을 더 잘해나갈데 대하여 가르쳐주시였습니다.

위대한 대원수님께서는 큰 자책감에 잠겨 서있는 전적지일군들과 강사에게 따뜻한 미소를 지어보이시면서 1900년대에는 그렇게 하였다 하더라도 2000년대에는 새롭게 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습니다.

그러시면서 2000년대도 시작된것만큼 인민들을 우리 당의 혁명전통으로 무장시키는 사업을 우리 함께 더 잘해보자고 크나큰 믿음을 안겨주시였습니다.

김정일대원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안으며 전적지일군들과 강사들은 새 세기에도 변함없이 **김일성**대원수님께서 이룩하신 혁명전통을 고수하고 빛내여나가시려는 **김정일**대원수님의 드팀없는 신념과 의지에 가슴뜨거워오름을 금치 못하였습니다.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이날 해질무렵까지 험한 눈보라길을 헤치시며 사자봉밀영, 청봉숙영지, 삼지연대기념비들도 돌아보시였습니다.

위대한 대원수님께서는 여러 혁명전적지와 사적지들을 돌아보시면서 혁명전통교양을 더 강화하는데서 나서는 문제들을 하나하나 가르쳐주시였습니다.

참으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 진행하신 백두산밀

영과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들에 대한 현지지도는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우리 인민들속에서 혁명전통교양을 더욱 강화하며 우리 당의 빛나는 혁명전통을 견결히 옹호하고 빛내이시려는 숭고한 뜻이 새겨진 성스러운 자욱자욱이였습니다.

제 29 과
콤퓨터교육에서 전환을 안아오시여

21세기는 과학과 기술의 시대, 정보산업의 시대입니다.

최신과학기술이 급속히 발전하고 현대적인 콤퓨터가 생산에 도입되고있는 정보산업시대는 그 어느때보다도 능력있는 과학기술인재들을 더 많이 요구하고있습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새로운 정보시대의 요구에 맞게 콤퓨터교육을 결정적으로 개선하도록 하시였습니다.

온 나라가 고난의 행군을 하던 주체85(1996)년 11월 어느날이였습니다.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당중앙위원회의 한 책임일군을 부르시여 콤퓨터교육과 관련하여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습니다.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학생들에게 현대적인 과학기술을 체득시키자면 콤퓨터에 대한 교육을 주는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우리는 학생들이 학교를 졸업하면 누구나 다 콤퓨터를 다룰줄 알게 하여야 합니다.》**라고 말씀하시였습니다.

그러시면서 자신께서 콤퓨터교육문제를 해결할 결심을 하신데 대하여 말씀하시였습니다.

위대한 대원수님께서 콤퓨터교육에 얼마나 깊은 관심을 두셨으면 고난의 행군으로 나라가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어려움을 겪고있는 때에 콤퓨터교육문제를 해결하실 결심을 하셨겠는가.

일군은 이런 깊은 감동속에 위대한 대원수님의 원대한 구상이 현실로 꽃펴날 콤퓨터기술발전의 휘황한 래일을 그려보았습니다.

위대한 대원수님께서는 콤퓨터교육을 개선하기 위하여 콤퓨터교육내용편성으로부터 콤퓨터교육조건을 마련하는 사업에 이르기까지 깊은 관심을 돌려주시였습니다.

위대한 대원수님께서는 한푼의 외화도 귀중했던 어려운 속에서도 **김일성**종합대학, 김책공업종합대학, 리과대학, 평양프로그람학원(오늘의 콤퓨터기술대학)을 비롯하여 대학과 중학교들에 최신형 콤퓨터를 수많이 보내주시여 콤퓨터교육의 물질기술적토대를 강화하도록 하시였습니다.

위대한 대원수님의 정력적인 지도밑에 교육부문에서는 콤퓨터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이 힘있게 벌어졌습니다. 이 과정에 대학과 중학교들의 콤퓨터교육수준이 한계단 높아지게 되였습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나라의 정보기술을 높은 수준에 하루빨리 올려세우기 위하여 콤퓨터수재들을 많이 키워내도록 하시였습니다.

주체90(2001)년 1월 어느날이였습니다.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일군들을 몸가까이 부르시여 콤퓨터수재양성과 관련한 강령적인 가르치심을 주시였습니다.

위대한 대원수님께서는 콤퓨터가 아무리 현대적인 기술수단이라고 하여도 인재가 없이는 그것이 자기의 능력을 발휘할수 없다고 하시면서 콤퓨터기술에서는 인재문제, 수재문제가 더욱 중요하게 제기된다고 말씀하시였습니다.

이 말씀은 일군들에게 콤퓨터수재양성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깊이 새겨주는 뜻깊은 말씀이였습니다.

위대한 대원수님께서는 콤퓨터수재들을 많이 키워내자면 콤퓨터수재양성기지를 잘 꾸려야 한다고 가르치시였습니다.

위대한 대원수님께서는 만경대학생소년궁전과 평양학생소년궁

전, 금성제1중학교(오늘의 금성학원), 금성제2중학교(오늘의 금성제1중학교)를 전문콤퓨터수재양성기지로 꾸리도록 하였다고 하시면서 여기서 콤퓨터를 전문으로 배운 학생들을 콤퓨터전문대학들에 보내여 교육을 계속 받도록 해야 한다고 말씀하시였습니다.

위대한 대원수님께서는 콤퓨터수재선발사업도 잘할데 대하여 가르치시였습니다.

전국적범위에서 제1중학교를 비롯하여 평양과 지방의 모든 중학교들에서 머리가 제일 좋은 학생들, 학습에서 가장 우수한 학생들을 선발하여야 한다고 하시였습니다.

그러시면서 수학경연이나 콤퓨터경연 같은데서 당선된 학생들은 다 금성제1중학교와 금성제2중학교 콤퓨터수재반에 넣어 공부시켜야 한다고 말씀하시였습니다.

위대한 대원수님의 이날의 가르치심은 일군들의 눈을 환히 틔워주었습니다.

일군들은 위대한 대원수님의 가르치심대로 콤퓨터수재교육을 더 잘하여 훌륭한 콤퓨터수재들을 더 많이 키워냄으로써 가까운 앞날에 콤퓨터기술을 비롯한 최첨단과학기술분야에서 단연 앞장에 설 마음속결의를 굳게 다지였습니다.

위대한 대원수님께서는 그후에도 콤퓨터수재교육에 깊은 관심을 돌리시고 온갖 사랑과 은정을 다 돌려주시였습니다.

이처럼 위대한 대원수님의 세심한 지도와 사랑에 의하여 콤퓨터교육에서 혁명적전환이 일어나고 콤퓨터수재양성체계가 정연하게 세워짐으로써 높은 급의 콤퓨터기술자, 전문가를 수많이 키워낼수 있는 밝은 전망이 열려지게 되였습니다.

그리고 온 나라에 누구나 콤퓨터를 배우려는 열의가 비상히 높아지게 되였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우리 나라를 과학기술강국으로 일떠세우시려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의 빛나는 예지와 세련된 령도의 결과였습니다.

정보산업 — 정보의 수집, 처리, 봉사활동과 정보기술수단들의 생산이 진행되는 산업부문.

최첨단과학기술 — 과학기술분야에서 가장 앞선 기술.

제 30 과
조국통일의 리정표 — 6.15북남공동선언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께서 한평생 바라시던 조국통일의 력사적위업을 기어이 성취하시려는것은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께서 지니신 확고한 결심이고 의지였습니다.

력사의 땅 판문점을 찾으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우리 시대에 반드시 조국을 통일하고야말 확고한 의지를 표명하시였습니다.

주체85(1996)년 11월 어느날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적들과 직접 총부리를 겨누고있는 위험한 판문점에로 현지시찰의 길에 오르시였습니다.

그때 일군들은 적들의 도발이 언제 일어날지 모를 가장 위험한 곳인 판문점에만은 나가시지 말아달라고 간절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판문점에 대한 현지시찰을 통하여 우리 인민들에게 조국통일의 신심을 더욱 북돋아주고 적들에게 더 큰 타격을 가하시려는 위대한 대원수님의 결심과 의지는 변함이 없으시였습니다.

이른새벽에 떠난 차가 판문점에 도착하였을 때였습니다. 뜻밖에도 판문점일대에는 때아니게 짙은 안개가 타래쳐흐르며 위대한 대원수님께서 타신 차를 감싸 가리워주는것이였습니다.

천출명장이신 위대한 대원수님의 신변이 념려되여 하늘도 천지조화를 일으켜 때아닌 안개구름을 몰아왔던것입니다.

너무도 희한한 자연현상에 감탄하며 절세의 위인을 모신 긍지로 일군들의 가슴은 더욱 높뛰였습니다.

이날 위대한 대원수님께서는 뭉게뭉게 피여 감싸고도는 젖빛안개의 호위를 받으시며 판문점일대를 시찰하시였습니다.

김일성대원수님의 친필비를 찾으신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한동안 비를 바라보시다가 비에 새겨진 수령님의 친필은 불과 아홉글자밖에 되지 않지만 여기에 담겨진 뜻은 수천수만자의 비문으로도 대신할수 없는 거룩하고 위대한것이라고 절절히 말씀하시였습니다.

이어 판문각에 오르시였던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김일성**대원수님의 친필존함이 또 보고싶으시여 내려오시는 길로 다시금 친필비를 찾으시였습니다.

친필비앞에 이르신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오래도록 걸음을 옮기지 못하시였습니다.

이윽고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친필비앞에 이렇게 서니 생각되는것이 많다고 하시면서 조국통일을 위하여 생의 마지막순간까지 모든것을 다 바쳐오신 **김일성**대원수님의 한평생에 대하여 가슴뜨겁게 돌이켜보시였습니다.

판문점에 세워진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의 친필비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깊은 생각에 잠겨있는 일군들을 둘러보시며 《**나는 수령님의 유훈대로 우리 시대에 반드시 조국을 통일하려고 합니다.**》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시였습니다.

50년대에 미제의 항복서를 받아낸 력사의 땅 판문점에서 다시금 조국통일의지를 선언하시는 위대한 대원수님의 숭고한 모습을 우러르는 일군들의 눈앞에는 통일된 삼천리 조국땅이 안겨오고 온몸에서는 새힘과 용기가 용솟음쳤습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력사적인 6.15북남공동선언을 채택하시여 조국통일의 새로운 리정표를 마련하시였습니다.

주체89(2000)년초 어느날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김일성**대원수님의 유훈을 받들어 북과 남사이의 력사적인 상봉과 최고위급회담을 여실 대담한 구상을 무르익히시였습니다.

이렇게 **김정일**대원수님의 구상과 통일의지, 대담한 결심에 의하여 그해 6월에 력사적인 평양상봉이 마련되게 되였습니다.

북과 남의 온 겨레가 통일의 뜨거운 열망을 안고 손꼽아 기다리던 력사의 날이 왔습니다.

넓으신 도량과 뜨거운 동포애를 지니시고 몸소 비행장에까지 나오신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남조선당국자(당시)를 비롯한 남측 일행을 따뜻이 맞아주시였습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열렬한 환대를 받게 된 남측 성원들은 너무도

6.15 북남공동선언의 기본내용

(2000년 6월 15일 발표)

1. 나라의 통일문제를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나가며
2. 북과 남이 련방제방식으로 통일을 지향시켜나가며
3. 올해 8.15에 즈음하여 흩어진 가족, 친척방문단을 교환하고 비전향장기수문제를 해결하며
4. 경제분야를 비롯한 여러 분야에서 협력과 교류를 적극적으로 진행하며
5. 이 합의사항을 실현하기 위해 빠른 시일안에 당국사이의 대화를 진행하도록 하는것이다.

황송하여 어쩔바를 몰라했습니다.

위대한 대원수님께서는 남측 대표단을 따뜻이 환대해주시였을뿐아니라 여러차례에 걸쳐 만나주시고 조국통일을 위한 문제를 가지고 담화하시였습니다.

특히 오랜 시간에 걸쳐 남조선당국자와 단독회담을 진행하시면서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통일문제를 자주적으로 풀어나갈데 대한 방안을 내놓으시였습니다.

외세의 간섭이 없이 전체 조선민족이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조국통일을 이룩할데 대한 방안은 아주 정당하고 현명한것이였습니다.

그래서 남조선당국자도 여기에 전적인 동의를 표시하였습니다.

이렇게 되여 통일문제를 해결하는데서 나서는 중대한 문제들이 단꺼번에 합의되게 되였고 드디여 6월 15일에는 력사적인 북남공동선언이 발표되게 되였습니다.

6.15북남공동선언의 발표는 위대한 정치가이시며 뛰여난 실력가이신 **김정일**대원수님의 위인적풍모를 다시금 온 세상에 시위한 일대 사변이였습니다.

6.15북남공동선언이 발표됨으로써 우리 인민은 통일의 새로운 리정표를 가지고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을 더욱 힘차게 벌려나가게 되였습니다.

리정표 － 발전행정에서의 일정한 단계 또는 그 발전방향, 목표를 보여주는 표식.

천지조화 － 하늘과 땅이 일으키는 여러가지 신비로운 변화.

도량 － 너그럽게 받아들이고 처리하는 품성.

제 31 과
로씨야를 방문하시던 나날에

인류의 영원한 태양이신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세계의 평화와 안전, 조로친선을 더욱 강화하기 위하여 주체90(2001)년 7월과 8월사이에 로씨야련방에 대한 력사적인 방문을 진행하시였습니다.

인민들의 열렬한 축원과 전송도 받으심이 없이 너무도 조용히 조국을 떠나신 방문길이였지만 **김정일**대원수님께서 로씨야에 들어서신 첫날부터 온 세계의 이목은 여기에 집중되였고 세계가 위인숭배열풍으로 끓어번졌습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로씨야련방을 방문하시는 기간 대통령과 중앙과 지방의 간부들, 인민들로부터 열렬한 환영을 받으시였습니다.

로씨야인민들은 위대한 대원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에서 최대의 성의를 다하여 열렬히 환영하였으며 대원수님의 대외활동성과를 진심으로 축하하였습니다.

로씨야대통령은 위대한 대원수님께서 보고싶어하시는것은 무엇이나 다 보여드렸으며 온갖 편의를 다 보장해드렸습니다. 큰 나라의 지도자가 위대한 대원수님께 드린 이 모든 성의는 대원수님께서 지니고계시는 국제적인 권위가 얼마나 높으신가 하는것을 온 세상에 보여주었습니다.

우리 인민들은 가시는 곳마다에서 로씨야인민들의 열렬한 환영을 받으시며 대외활동을 벌리시는 위대한 대원수님의 로씨야방문소식을 매일, 매 시각 신문과 TV방송으로 전해들으면서 세계가 우러르는 대원수님을 모시고 사는 크나큰 민족적궁지와 자부심으로 충만되였습니다.

로씨야인민들의 진심에 넘친 최대의 환영과 환대, 세계인민

들의 열렬한 축하는 **김정일**대원수님이시야말로 세계가 우러르고 한결같이 따르는 위대한 태양이시라는것을 다시금 뚜렷이 보여주었습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방문기간 조로친선의 강화발전과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하여 정력적인 대외활동을 벌리시였습니다.

위대한 대원수님께서는 로씨야방문기간 조로모스크바선언을 채택하시였습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습니다.

《이번에 채택된 조로모스크바선언의 내용이 아주 좋습니다.》

조로모스크바선언에는 조선과 로씨야 두 나라사이의 친선협조관계를 발전시킬데 대한 문제를 비롯하여 우리 당의 자주적인 대외정책이 명백히 밝혀져있습니다.

특히 선언에 남조선주둔 미군철수문제를 조항에 정식 박아넣음으로써 우리의 자주적이며 강경한 립장을 다시금 보여주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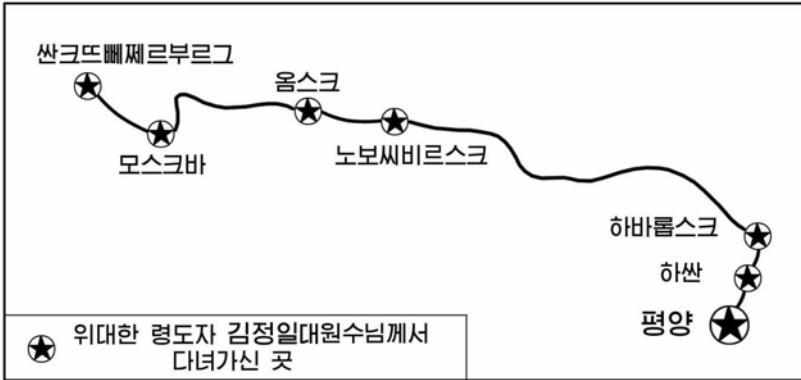
사실 세계의 대다수나라들은 미국의 압력이 무서워 눈치만 보면서 제할소리도 바로 하지 못하고있었습니다.

하지만 강철의 담력을 지니신 위대한 대원수님께서는 미국에 대고 이러한 폭탄선언을 하시였던것입니다.

위대한 대원수님께서는 로씨야방문의 나날 조국에 계실 때보다 더 긴장하게 정력적으로 대외활동을 벌리시였습니다.

위대한 대원수님께서 로씨야를 방문하시던 8월은 삼복의 무더위와 폭우로 하여 자연기후조건이 매우 불리하였습니다.

그러나 위대한 대원수님께서는 로씨야를 방문하시는 전기간 야전식생활을 하시면서 분과 초를 쪼개가며 매우 긴장한 나날을 보내시였습니다.

동행했던 우리 일군들이 위대한 대원수님의 건강이 걱정되여 점심시간을 조금 길게 정했을 때였습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의 로씨야방문로정도

위대한 대원수님께서는 일군들을 나무람하시며 점심식사시간을 단축하게 하시고 그야말로 순간의 휴식도 없이 대외활동을 벌리시였습니다.

이처럼 위대한 대원수님께서 진행하신 로씨야방문의 하루하루는 조국과 인민, 세계의 자주화와 평화를 위하여 자신의 한몸을 깡그리 바치신 헌신의 나날들이였습니다.

위대한 대원수님께서는 로씨야의 여러 도시들과 여러 분야의 많은 대상들을 참관하시면서 무엇이나 무심히 대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면 우리 인민을 더 잘살게 하고 우리 나라를 더욱 부강하게 하겠는가에 대하여 많이 생각하시였습니다.

위대한 대원수님께서는 로씨야땅에 들어서시면서부터 자신께서 타신 렬차와 어기는 렬차가 얼마나 되는가 하는것을 세여보시면서 렬차편성은 어떻게 하고 렬차에 실은 짐은 얼마나 되는가 하는것을 짐작해보시였습니다.

낮에는 차창밖을 내다보면서 세시였고 밤에는 렬차가 지나가는 소리를 듣고 세시였습니다. 피곤하여 잠간 눈을 붙이실 때에는 다른 사람을 시켜 세여보도록 하시였습니다.

이렇게 위대한 대원수님께서는 렬차를 타고 오랜 시간 광활한 대지를 지나시면서도 사물현상을 그저 스쳐보내는 일이 없이 사색

을 하시며 우리 인민이 남부럽지 않게 잘사는 사회주의강성대국을 하루빨리 일떠세울 구상을 무르익히시였습니다.

참으로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의 20여일간에 걸치는 로씨야방문은 선군조선의 존엄과 영예를 떨치고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께서 마련하여주신 조로친선의 업적을 더욱 빛내이신 력사적사변이였으며 세계의 자주화와 평화를 수호하신 위대한 장정이였습니다.

야전식생활－전투장에서와 다름이 없는 생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 혁명활동
(중학교 제3학년용)
제 3 판

집 필 **박사, 부교수 원영숙**　　심 사 **심의위원회**
편 집 **주 영**　　콤퓨터편성 **리은경**
장 정 **류명심**　　교 정

낸 곳 교육도서출판사
인쇄소 교육도서인쇄공장

2판발행 주체99(2010)년 9월 24일
3판인쇄 주체100(2011)년 월 일　　3판발행 주체101(2012)년 월 일

교-　　값 원